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이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임 재 현

이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지 삼 업

이 논문을 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임 재 현

林宰賢의 理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1年 2月 25日

委員長 理學博士 金 圭 坤 (印)

委 員 體育學碩士 李 泰 雄 (印)

委 員 理學博士 裵 永 勳 (印)

委 員 哲學博士 文 善 鎬 (印)

委 員 理學博士 池 三 業 (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모형 및 가설 ····· 7
   가. 연구모형 ····· 7
   나. 연구가설 ····· 8
4. 용어의 정의 ····· 9
   가. 해양스포츠(Marinesports) ····· 9
   나. 라이프스타일(Lifestyle) ····· 9
   다. 만족(Satisfaction) ····· 9
   라. 선택행동(Selection Conduct) ····· 10
5. 연구절차 ····· 11
6. 연구의 범위 ····· 13

Ⅱ. 이론적 배경 ····· 14

1. 해양스포츠 ····· 14
   가. 해양스포츠 개념 ····· 14
   나. 선진국 해양스포츠 ····· 17
   다. 해양스포츠 유형 ····· 20
2. 라이프스타일 ····· 21
   가. 라이프스타일 개념 ····· 21
   나. 라이프스타일의 분석방법 ····· 24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 만족 ····· 27
가. 만족도의 특성 ····· 28
나. 시설 만족도 ····· 32
4. 선택행동 ····· 34
가. 재방문의도 ····· 34
나. 구전의도 ····· 36

Ⅲ. 연구방법 ····· 39
1. 연구대상 ····· 39
2. 조사도구 ····· 42
가. 조사도구의 구성 ····· 42
3. 조사절차 ····· 44
4. 자료처리 ····· 44
5.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 45
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46
나. 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50
다. 선택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52

Ⅳ. 연구결과 ····· 54
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 54
가. 라이프스타일의 평균 차이분석 ····· 54
나. 만족의 평균차이 분석 ····· 65
다. 선택행동의 평균차이 분석 ····· 69
2. 참가자의 참여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 72
가. 라이프스타일의 평균차이 분석 ····· 72

나. 만족의 평균차이 분석 ····· 80
다. 선택행동의 평균차이 분석 ····· 83
3. 라이프스타일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 86
가. 라이프스타일이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 ····· 86
나.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만족에 미치는 영향 ····· 88
4. 라이프스타일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 89
가.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89
나.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 90
5. 만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 92
가.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92
나.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 93

Ⅴ. 논의 ····· 94
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 94
2. 참가자의 참여 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 97
3.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과의 관계 ····· 99

Ⅵ. 결론 및 제언 ····· 102
1. 결론 ····· 102
2. 제언 ····· 104

참고문헌 ····· 105
부 록: 설 문 지 ····· 120

표 목 차

<표 2-1> 해양스포츠 유형별 분류 ····· 20
<표 2-2> 각 연구 영역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의(1960년대) ····· 23
<표 2-3> 라이프스타일의 범위 ····· 25
<표 2-4> 라이프스타일 분석방법 ····· 26
<표 2-5> 여가만족 척도(LSS) ····· 30

<표 3-1>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0
<표 3-2>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형태 ····· 41
<표 3-3> 측정도구의 구성 ····· 42
<표 3-4>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설문문항 ····· 48
<표 3-5>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49
<표 3-6> 만족에 대한 설문문항 ····· 51
<표 3-7> 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51
<표 3-8> 선택행동에 대한 설문문항 ····· 52
<표 3-9> 선택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 53

<표 4-1>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55
<표 4-2>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57
<표 4-3> 결혼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58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60
<표 4-5> 소득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62
<표 4-6> 직업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64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만족의 차이 ····· 66

<표 4-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 ····· 68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재방문의 차이 ····· 70
<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재방문의 차이 ····· 71
<표 4-11> 참여시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74
<표 4-12> 주 이용횟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76
<표 4-13> 이용기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77
<표 4-14> 참여구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 80
<표 4-15> 참여형태에 따른 참여만족의 차이 ····· 81
<표 4-16> 참여형태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 ····· 83
<표 4-17> 참여형태에 따른 재방문 의도의 차이 ····· 84
<표 4-18> 참여형태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 85
<표 4-19> 라이프스타일이 참여 만족에 미치는 영향 ····· 87
<표 4-20>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만족에 미치는 영향 ····· 88
<표 4-21>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90
<표 4-22>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 91
<표 4-23>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92
<표 4-24>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 9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모형 ····· 7
<그림 1-2> 연구절차 ····· 11

<그림 2-1> 기대와 경험에 의한 주관적 만족도 ····· 2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임 재 현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요 약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에 걸쳐 해양스포츠 이용자가 가장 많고 활성화 된 지역인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경기도(청평호), 경남(거제도), 서울(한강 뚝섬), 포항(북부 해수욕장)에서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총 462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 행동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해양스포츠 이용자가 가장 많고 활성화 된 지역인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경기도(청평호), 경남(거제도), 서울(한강 뚝섬), 경북(포항 북부 해수욕장)에서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연구자와 조사원이 연구대상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구성타당도이었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타당도의 형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요인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인 추출은 반복적 추축인자법과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용인 행렬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타당도의 기준은 그 절대 값이 0.5이상이면 1% 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0.5보다 큰 요인적재치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62명의 해양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특성과 만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계프로그램을 SPSS 12.0 사용하여 검토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만족이나, 시설만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은 다르며, 이를 고려한 연구 및 해양스포츠를 운영하는 마리나의 마케팅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해양스포츠는 남자들만이 이용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여성들도 적극 참가하는 스포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해양스포츠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가형태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에서는 이용시간이나 이용횟수, 이용기간, 참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는 이용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고, 이용횟수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참가자, 3년 이상의 경력, 개인의 참여형태를 보일 때 많은 라이프스타일 인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 1회의 참가자들은 주말을 이용한 참가자들일 경우가 많을 것이며, 오랜 시간의 이용보다는 짧지

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참여형태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이 고려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만족과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족 또한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참여 만족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은 다르며, 선택행동에도 차이가 난다.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은 양질의 해양스포츠를 즐기기를 원할 것이며, 이를 통한 만족은 선택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서로 다르며,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군집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나은 시설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화 및 산업화된 현대사회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가활동은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등으로 여가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증가는 운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인간의 활동욕구를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 결과 스포츠 활동이 현대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그 가치 및 중요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윤이중, 1996).

이러한 가운데 여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나태한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관전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가운데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자연을 벗 삼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비롯하여 레크리에이션, 놀이 및 스포츠 등을 원하게 되었다.

자연친화적 스포츠는 현대성의 맥락에서 그동안 객관화되고 종속되어져 온 자연과의 조화와 협응(協應)을 강조한다. 실제로 자연친화적 스포츠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상업화된 현대 스포츠에 대한 반발로 태동한 스포츠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개혁 및 자연과 인간 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친화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임번장, 2006).

이러한 여가활동 중 현대사회 스포츠 활동의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바다, 강, 호수, 하늘 등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친화관계를 바탕으로 해양스포츠와 같은 에코스포츠(ecosports)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안영필, 최인섭, 박성계, 조만태, 1996). 이와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 2011년 7월 주2일 휴무

제의 전면실시, 그리고 일보다는 여가생활을 더 중요시 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해양스포츠를 즐기려는 인구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상호, 2007).

한 편으로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련을 계기로 해양관광 프로그램(스포츠형·레저형·관광형) 중 관광객이 한 곳에서 4시간 머물게 할 해양관광매력물인 해양스포츠 육성을 위해 각종(마리나・보트계류장・다기능어항) 전진기지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09년 9월 기준, 각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에 해양스포츠 각종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예산지원을 요청한 곳은 제주도를 포함 총 171개소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 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중 총 43개소를 마리나항(보트 300척 수용규모의 거점형 8개소・200척의 해양리조트형 5개소・100척의 스포츠형 30개소)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우선 사업 첫해인 2010년에는 목포, 여수, 울산 등 3개소부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오는 2019년까지 향후 10년간 연차적으로 상업마리나를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지삼업, 2010a).

그러나 상업마리나 중심은 시장현재화 시점이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참여가 부진하여 정부의 마리나 개발계획은 상당부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해양스포츠 각종(마리나·다기능어항·보트계류장)전진기지는 집과 같은 안락함과 쾌락을 만끽할 클럽하우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공간이다. 또한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는 해양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질서(안전)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는 한편으로 해양스포츠의 세계를 형성하는 근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생각(감정・의지 등)이 한껏 담겨있는 해양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지금보다 개인소득이 한층 증대될 2020년까지는 정부차원의 깊은 이해와 함께 공공마리나의 개발·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마리나산업 선진국들의 선례도 그렇다(지삼업, 2009b).

Engel, J. F, R. D, Blackwell and D. T. Kollat(1978)는 라이프스타일을 사람의

생활 혹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특성이라 하였고, 또한 개인이 문화, 사회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인적 특성의 파생물로 보았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각 개인의 의식 및 행동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 특정 계급 또는 집단의 생활양식,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이 통합된 체계로서 유형별로 분류되며 소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활의식, 생활행동, 가치관, 태도 등의 복합체로서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걸쳐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라이프스타일은 생활관련 구매 및 소유, 생활의 시간배분 패턴, 생활공간의 이용패턴 등의 분석을 통하여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McCarthy, 1993). 이러한 인간행동의 본질을 묘사하는 중요한 사회지표의 하나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예전의 사회학적 추세에서 요즘은 주로 마케팅 시장의 세분화와 소비자에 관련된 관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양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을 연계시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행동의 본질을 묘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해양스포츠 및 마리나를 활용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도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매우 기대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이재빈, 2010).

라이프스타일의 하나인 스포츠형 라이프스타일은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가에 대한 의지표시가 강하게 나타나며, 스포츠나 운동이 친구를 사귀는 등의 사교적 장소로 기대하는 것(Plummer, 1971; Wells & Tigert, 1971)을 스포츠형 말한다. 또한 하지원(1998)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센터 등 스포츠에 대한 직접참여에는 스포츠형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만족도 연구는 관련 각종종목의 프로그램 제공자들에게 도

움을 주고 해양스포츠 이용자에게 좀 더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많은 만족감과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족도의 전반적인 측정방법이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점 때문에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Ragheb와 Beard(1980)의 연구에서는 만족을 '관광 활동과 관광 선택에 참여한 결과로서 개인적으로 형성된 인식이나 감정 또는 일반적 관광 경험과 상황에 만족하거나 즐거워하는 정도'라 규정하고, 관광 활동의 만족을 동기 충족의 관점에서 심리적·교육적·사회적·휴식적·신체적·환경적 요인으로 유형화된 만족도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제시하였다.

선택행동의도(Selection Beharvioral Intention)라는 용어도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이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의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구매의도, 또한 호텔 및 스포츠센터 등의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재이용의도, 관광지의 경우 재방문의도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바로 행동이다(최규환, 2005).

기존의 해양스포츠 관련연구에서 참가자의 이용만족의 경과변수로서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를 이용자의 방문의도, 즉 행동의 개념으로써 논의되어 왔다. 해양스포츠 관련 연구로는 "국제행사의 경제효과 및 해양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요인 분석"(지삼업, 2002), 프로그램개발(양위주 등, 2007), 해양스포츠 활동의 신뢰도와 만족도(문선호, 2009), 해양스포츠 이용자의 재방문과 구전의도(고영완 2005; 문태영, 2007),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몰입도(김준, 2007), 라이프스타일의 활용(이재빈 2010)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에 직접 참여한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검토하여 그들의 요구와 취향을 적극 고려한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재방문, 재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해양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환경적 측

면에 따라 해양스포츠 참가자가 만족할 만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속성을 구명(究明)하고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재방문의도, 그리고 권유의도의 연관성을 각각 검토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형태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만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모형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사회학적 관점으로 해양스포츠분야에서의 이론 및 경험적 연구에 토대를 두고, 해양스포츠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만족과 선택행동에 관한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가.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라이프스타일 유형,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만족,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선택행동을 중심으로 변인을 설정하였고, 이들 구체적인 변인들을 토대로 하여 <그림 1-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모형

나.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정한 관련변인의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형태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 라이프스타일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라이프스타일은 참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라이프스타일은 시설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라이프스타일은 선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라이프스타일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라이프스타일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 만족이 선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 참여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 참여만족이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 시설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4 : 시설만족이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해양스포츠(Marinesports)

해양스포츠는, 바다・강・호소(湖沼) 등 자연의 물에서 동력・무동력・피견인 등의 각종 장비(보트 등)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인 스포츠형(엘리트체육) 해양스포츠와 비경쟁적인 레저스포츠형(생활체육・해양레크리에이션) 해양스포츠를 비롯하여 학교체육교육으로서의 해양체육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함의하는 광의적 개념이다(지삼업, 2006).

나.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라이프스타일은 인간행동 전반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행동양식으로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파생물이며 개인의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결정 요소의 역할을 한다. 라이프스타일은 구체적인 행동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단순한 가치관도 아니며 또한 태도와 다른 것으로서 이는 가치와 태도를 모두 포괄·함의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남주, 2005).

다. 만족(Satisfaction)

이용자 자신이 지불한 희생의 대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혹은 부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지상태라 하였으며, Oliver(1981)는 불일치한 기대와 관련한 감정이 이용자의 소비경험과 이전의 느낌이 결부될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심리상태라 하였다. 또한 한혜림(2004) 및 Westbrook과 Reilly(1993)는 제공받은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이용하는 특정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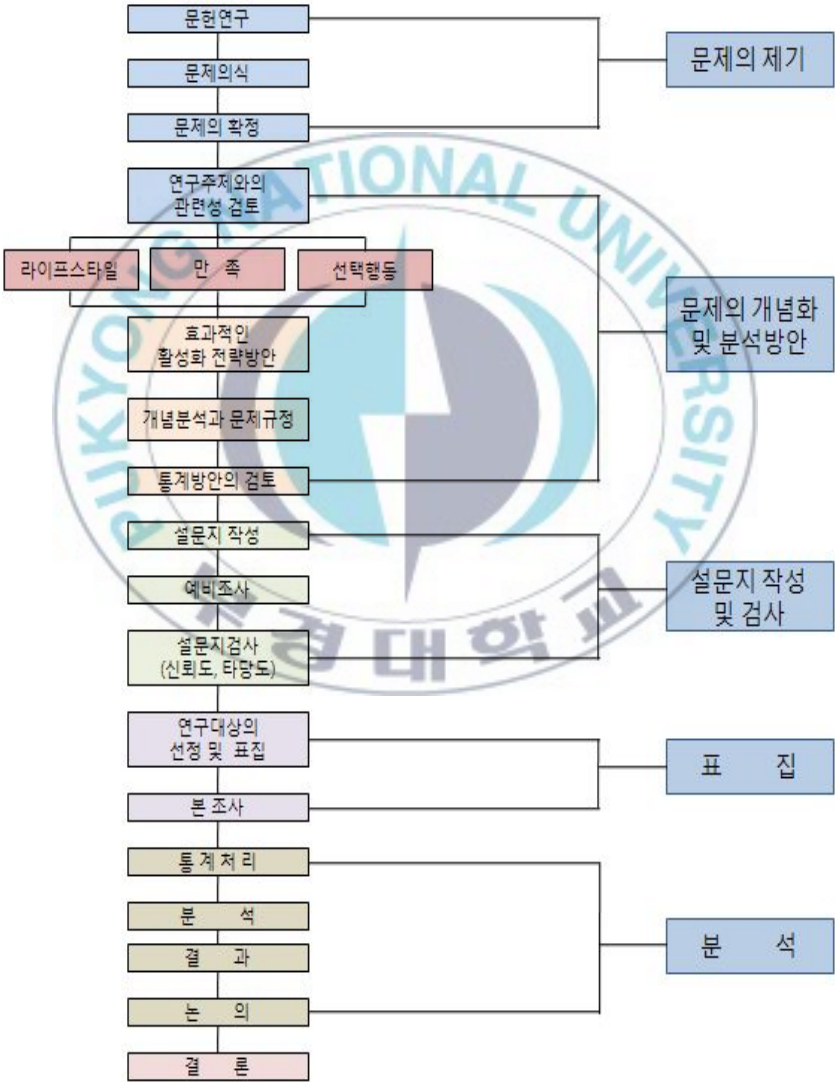
라. 선택행동(Selection Conduct)

이광문(2007)은 개인이 관광관련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과정에서부터 관광행동을 위한 준비물, 즉 상품구매의 실제적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과정에서부터 이용 후 행동을 위한 이용 후의 과정을 총괄하는 정의라고 보고 선택행동을 재방문의도, 권유의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5. 연구절차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절차

1) 연구 주제의 선정: 2010년 2월~2010년 3월.

2) 연구주제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수집: 2010년 3월~2010년 4월.

3) 문헌검토 및 자료의 분석: 2010년 4월~2010년 4월.

4) 예비조사 문항의 구성: 2010년 4월~2010년 4월.

5) 전문가와의 토의: 2010년 4월~2010년 5월.

6) 설문지 작성: 2010년 6월~2010년 6월.

7) 예비조사(1차~3차): 2010년 6월~2010년 6월.

8) 설문지 수정 및 보완완성: 2010년 6월~2010년 7월.

9) 설문지 배부/ 조사 및 수집: 2010년 7월~2010년 8월.

10) 통계처리 및 분석: 2010년 8월~2010년 9월.

11) 논문작성: 2010년 8월~2010년 10월.

※ 연구주제 관련 국내 유명 해양스포츠 이용지역을 연구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각종 연구 자료를 수집함.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6.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모색함에 있어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연구를 한정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0년 7월~8월 해양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을 선별하여 그 중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경기도(청평호), 경남(거제도), 서울(한강 뚝섬),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실시된 해양스포츠 제전 기간)에서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로 한정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해양스포츠 동호인(클럽) 및 개인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가치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 분석만으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해양스포츠

가. 해양스포츠 개념

여러 사회학자들은 스포츠의 신체성, 규칙성, 경쟁성 등을 강조하여 이를 놀이와 게임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의해 왔다. 즉 “스포츠는 경쟁적인 신체적 활동의 제도화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좁은 의미의 스포츠(체육)이다. 스포츠(체육)는 경쟁적인 스포츠형(엘리트 체육)과 비경쟁적인 레저스포츠형(생활체육·레크리에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원영신, 2004).

지삼업(2006)은 “해양스포츠는, 바다·강·호소 등 자연의 물에서 동력·무동력·피견인 등의 각종 장비(보트 등)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인 스포츠형(엘리트체육) 해양스포츠와 비경쟁적인 레저스포츠형(생활체육·해양레크리에이션) 해양스포츠를 비롯하여 학교체육교육으로서의 해양체육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함의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지삼업(2008b)은 “공간적 범위는 제도의 존중, 사람과 장비의 안전이 확보되는 가운데 인간의 문화가 미치는 그 어디쯤의 공간, 즉 수직 개념은 수심 70㎝~30m내외이고, 수평 개념은 나라 안의 경우, 해변~영해까지”라고 밝혀 해양스포츠 활동의 공간적 범위까지도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해양스포츠는 스포츠사회화를 위한 완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처럼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 또한 물에서 행하여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사전적 의미로 “자연에 맞서 싸우며 헤쳐 나가는 것”이므로 사람들 사이의 충돌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일어 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공동 협력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화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양스포츠는 행복의 견지에서 개인의 삶에 에너지와 즐거움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제거하며 건강과 기쁨을 향상시킨다. 게에다 해양스포츠는 그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볼 수 있는 해양 생산력과 잠재적 기술을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산업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세계화적인 스포츠 종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남동현, 백광, 2001). 그렇지만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해양스포츠를 장소, 또는 장비에 의해 마린스포츠(marine sports), 아쿠아틱스포츠(aquatic sports), 또는 수상레저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스포츠사회학자들은 스포츠(체육)의 신체성, 규칙성, 경쟁성 등을 강조하여 놀이와 게임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의해 왔다. 물론 해양스포츠(우리말의 해양체육에 해당)는 체육이 그럼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해양스포츠를 '해양레저' 또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 분야 중심개념에 대한 통일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저'라는 어휘(語彙)의 연원과 본질적 의미를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 짚어보면, 레저는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재량 시간, 즉 여가"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레저"라는 낱말은 세계적으로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부터 흔히 사용하는 말로써 관용화 되었다. 레저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활동을 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처럼 해양스포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수상레저스포츠'[1]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1) '수상레저스포츠'라고 이해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김기연(2008), 김성겸(2008), 김성훈(2008), 이수철(2008), 백재근(2008), 함도웅(2007) 등이 있음.

것과 함께 바다, 강, 호수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종교요 삶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육체적, 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 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스포츠"라고 이 분야의 체육적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 '해양레저스포츠'[2]의 경우 "물에서 행하여진다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교적 위험한 운동으로 인식되지만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매우 유익한 레저스포츠로써 행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해양레저스포츠는 혼자서 행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행하기 때문에 협동심·긍정적 대인관계 조성 등 신뢰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더불어 스포츠 사회화에 있어 태도나 역할 가치 면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중심개념이 일부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예외적으로 지삼업(2006, 2008, 2009)의 연구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양스포츠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과 함께 바다 강 호소(湖沼)[3]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종교요, 삶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체육적·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전스포츠"라고 밝혀 해양스포츠의 중심개념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2) '해양레저스포츠'라고 이해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이진모(2009), 김경도(2009), 김태훈(2008), 이상호(2007), 임찬목(2006), 황철상(2006), 박효영(2006), 황영길(2005), 박승환(2005), 여천수(2004), 정종석(2004) 등이 있음.

3) 내륙의 와지에 있는 정수괴를 총칭하는 말로 육수학적으로는 호수, 늪, 소택, 습원으로 분류된다. 호수는 최심부가 5m 이상 되는 것을 말하며 늪은 최심부의 깊이가 5m 이며 침수식물이 무성한 곳을 말하며 소택은 도처에 정수식물이 무성하고 최심부가 1m이하인 곳을 말한다. 습원은 습지식물이 무성히 덮여 있는 곳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나. 선진국 해양스포츠

선진국의 해양스포츠는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 보다 시대적으로 일찍이 보급되었다. 영국의 해양스포츠의 경우 맥그레일(McGrail, 1981)은 '선박 : 고무보트, 보트와 선박들,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에서 가장 초기 형태의 보트는 갈대, 나무껍질, 통나무를 비롯하여 '짐승가죽'과 '목선(木船)'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원료와 조선(造船) 방법을 활용하여 사람들은 수상운송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물론 이 당시의 활동은 일과 생존, 놀이와 여가 간의 경계선이 항상 분명치 않았고, 특히 산업혁명까지는 일반 남, 여에게 있어 일과 여가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된 노동과 그 뒤의 한가한 시간과 함께 농업 생산은 계절의 변화에 따랐다. 오늘날 민속놀이로 알려진 스포츠 활동들은 낮에 밭에서 행해졌다. 중세에는 육상관광 및 해양관광이 부담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고 고된 일로 치부되었다. 여가 활동으로써의 여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소풍, 박람회, 축제와 스포츠 또는 오락을 위한 여행에 한정되었다고 한다.

생활체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의 효시는 찰스 2세가 1661년 요트분야 최초의 경기인 그리니치(Greenwich)부터 그레이브젠드(Gravesend)까지 세일링 하는 경기에 직접 참가한 대회를 꼽을 수 있고, 동호인클럽이 결성된 효시는 1720년 영국 최초의 항해 클럽인 'Water Club Harbour of Cork(현 Royal Cork Yacht Club)'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요트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으로서 태동되고, 또 활성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지삼업, 2008b).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영국의 남서쪽 해양도시에 위치한 플리머스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 학부과정에는 세일링요트 제작의 중심이 되는 '해양스포츠과학(Marine Sports Science)과'를 비롯하여 '해양스포츠 경영학과', '해양스포츠학과' 등 3개학과

가 있고, 샐퍼드 대학교에서는 수영장이나 실내 시설에서 이뤄지는 수구, 경영(競泳), 하이다이빙, 수중발레 등을 연구하는 '수상스포츠 Water Sports학과'가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인 마이얼 스코프 대학도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수상스포츠학위를 수여한다. 그리고 사우스햄튼 솔렌트대학교에서는 '수상스포츠경영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국립카노야체육대학 해양스포츠센터에서는 매년 연말 현직교수와 해양리조트(각종 전진기지)관계자, 해양스포츠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년 3월에 '해양스포츠 연구'라는 연구 보고지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 센터가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세일딩기요트, 세일크루저요트, 윈드서핑, 모터요트, 해양카약, 해양카누 등 10여 개 종목이다. 그러나 북미 쪽에서는 이들 스포츠를 '아쿠아스포츠 Aquasports: 수상스포츠'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외국대학의 학부 명칭과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 보고지의 명칭을 놓고 보면, 각종 장비(보트)를 이용하여 바다와 강 등 자연의 물에서 활동하는 세일링요트, 모터요트, 윈드서핑, 스포츠잠수, 수상오토바이 등을 연구하는 학과의 명칭은 '해양스포츠(Marinesports) 학과'이고, 연구 보고지(誌)의 명칭 역시 '해양스포츠 연구'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실내 시설에서 이뤄지는 수구, 경영(競泳), 하이다이빙, 수중발레 등을 연구하는 학과는 '수상스포츠 Water Sports 학과'라고 그 특징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삼업(2008b)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세계의 여러 학자들과도 학문적관점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물은 철학적 관점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마린(Marine)'과 '워터(Water)'가 현장중심의 접근이라면, '아쿠아(Aqua)'는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하는 이념과 정신적 측면에서 접근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같은 현장중심의 접근이라도 '마린'은 자연의 물을 현장으로 하는 측면이고, '워터'는 수영장과 실내시설 등 인공적인 물을 현장으로 하는 측면이다. 그렇지만 북

미지역은 자연의 물과 인공적인 물에 따른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음도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경우 해양스포츠가 진작부터 생활체육으로써, 또는 해양레크리에이션으로써 활성화되어 왔지만, 이들 나라의 대학에서는 지금껏 해양스포츠가 독자적인 학위취득과정으로서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일반 체육학과에서 윈드서핑, 요트, 스포츠 잠수 등 개별종목을 학점 이수하는 정도이다. 이들 나라의 경우, 해양스포츠 분야 강사양성, 초보자 강습, 자격증 발급 등에 관련된 업무는 각 종목별 협회가 진작부터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고, 특히 스킨다이빙 등 초보자 강습은 해양리조트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정보발신 기능도 미진하다. 그런 결과로 해양스포츠 개념 정립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여 지금껏 제 각각으로 난립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다. 해양스포츠 유형

(1) 국내 유형

해양스포츠는 각종 장비(보트)를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보트의 종류, 동력장치의 유무에 따라 동력종목, 무동력 종목, 피견인 종목으로 각각 구분한다(지삼업, 2008b). 이재빈(2010)의 연구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법률에서의 해양스포츠를 총 1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2-1> 해양스포츠 유형별 분류

구 분	유 형
동력해양스포츠 기구	• 모터보트, 모터요트, 수상오토바이, 5마력이상 엔진장착고무보트, 호버크라프트, 스쿠터 등
무동력해양스포츠 기구	• 세일딩기·크루저요트, 해양조정, 해양카약, 해양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노보트
피견인 해양스포츠 기구	• 수상스키, 워터슬레이드, 패러세일링

출처: 이재빈(2010).

2. 라이프스타일

가. 라이프스타일 개념

라이프스타일이란 개념은 사회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의 유형, 양식 또는 방법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한 생활양식이 아닌 행동과 사고가 결합된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심리적 차이를 상징하는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말이다(진수문, 2009).

사회학에서 라이프스타일을 Weber(1968)는 사회학자로서 사회계급이론 즉 지위(Status)에 의한 연구에서 종래의 개념인 계급 외에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사회집단이 나뉜다는 견해를 갖고 인간 행동의 동기가 과거에는 전통이나 가치 지향적 합리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Duncan(1969)은 라이프스타일을 단순한 기호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된 원리라는 것을 지적하여 이를 라이프스타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라이프스타일은 그 집단에 소속된 동조하여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하였다

심리학에서는 Adler(1996)가 처음 'style of life'라는 말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각 개인을 외부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그들의 과거 생활환경에서의 대리경험 혹은 독자적인 해결방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태도 등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것을 일컬어 라이프스타일 이라 하였다.

Coleman(1964)은 라이프스타일을 일관된 지각, 사고, 행동이라 하였고 개인은 개개의 비교적 일관된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Allport(1965)는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개인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하여 방향성을 띠는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생활방식

을 방향 짓고 통합하는 것이라 하였다.

소비학적 측면에서 Lazer(1963)는 총체적이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은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 계층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이며 특징 있는 생활양식을 말하며 이는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양식을 설명 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양식이 다른 것과 구별 될 수 있는 구성인자나 특징과 관련 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문화, 가치, 자원, 상징, 허가, 제재 등이 정형화된 결과로서, 구매하는 제품, 사용하는 상징체계, 소비하는 방법에는 사회의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Levy(1963)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생활자원들의 결합 또는 개개인의 활동을 암시하는 하부심벌로부터 합성된 복합심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판매자는 심벌로 해석하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큰 심벌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부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Moore(1963)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중점을 두는 연구를 하였는데, “라이프스타일은 패턴화된 생활양식으로 가족 구성원이 여러 가지 상품, 사건, 자원을 생활양식에 맞게 조화시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내용(life style package)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며, 또한 가족 신념 체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1960년대 초기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타일을 각자 시스템적 사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가족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두었으며, 목적과 관심에 따라 개인 또는 사회 전체를 포함시켜 생활환경・양식, 미래지향적 태도, 구매행동 등으로 연구되어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확립시켰으며, 이 후 Enger 과 Blackwell이 1980년대에 심리적 요인을 내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적합한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은 학문적 경향에 따라 다르며 인간의 성격, 가치관, 생활의식, 생활행동, 심리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복

합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소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된다.

<표 2-2> 각 연구 영역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의(1960년대)

연구 분야	연구자	정의
사회학	Weber (1968)	재화의 소비 양식, 직업, 양육 및 교육 패턴 등에 의해 형성된 계층으로 생활기회,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관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특성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 계급(Class)이외의 새로운 계층분류의 기준인 지위그룹(status group)
	Duncan (1969)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동조하여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
심리학	Adler (1996)	개인을 행동주체로서, 외부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닌 능동적이며 목표지향적인 자기 통일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이러한 개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찾아내어 개인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열쇠임
	Coleman (1964)	일관된 지각, 사고 행동을 개인을 독자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확립
	Allport (1965)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진 개인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하여 방향성을 띄는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소비학	Lazer (1963)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 계층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이며 특징있는 생활양식으로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양식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것과 구별 될 수 있는 구성인자나 특징과 관련되어 있음
	Levy (1963)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생활자원들의 결합 또는 개개인의 활동이 암시하는 하부심벌(sub-symbor) 합성된 복합심벌(complexity-symbor)임
	Moore (1963)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제품, 사업, 자원들을 그 속에 맞추는 가족들의 정형화된 생활양식

출처: 서금화, (2007), 재구성

나. 라이프스타일의 분석방법

라이프스타일 분석방법은 다양하나, 크게 거시적 분석(macro) 방법과 미시적(micro) 분석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 라이프스타일 조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양켈로비치(Yankelovich)사의 정례조사와 Stanfort Reaserch Institute(SRI)의 사회 추세 예측조사 Values and Lifestyle(VALS)을 들 수 있다. Yankelovich사 정례조사는 소비 행동이나 생활 행동을 규정하는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문항으로 정리하여 항목별로 규정해서 그 상대적 중요도를 고찰하여 사회적 트렌드를 규정하는 방법이다(채서일, 2003).

미시적 분석은 거시적 분석과 달리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집단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시적 분석 방법에는 주로 소비자들의 일상 행동, 개인적·사회적 관심사, 그리고 태도 등을 반영하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파악하는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분석법과 Psychographics 분석법이 있으며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거시적 분석보다는 미시적 분석이 용이함을 감한하여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분석법과 Psychographics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AIO 분석방법(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AIO 분석법은 소비자의 인간적인 측면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의 행동(A: Activities),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I: Interests), 사회적·개인적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O: Opinions)이라는 세 가지의 차원에서 분석·파악하려는 방법이다.

AIO에 의한 진술항목은 일반 AIO와 특수 AIO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첫째 일반

AIO는 소비자 행동이나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생활패턴이나 전반적인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특수 AIO는 특정제품이나 특정상표와 관련된 활동, 관심, 의견을 측적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이나 상표에 대한 태도, 사용빈도, 정보원천으로서의 매체 등과 같은 진술이 포함된다. 그래서 상품이나 상표의 실제 소비자 선택행동을 예측하는데 이용한다 (Bushman, 1982). AIO 측정 시에 연력, 교육, 소득, 가족규모, 생활주기 단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시키면 더욱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llumer(1974)는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라이프스타일의 범위

활동(A)	관심(I)	의견(O)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	가 족	자기 자신	나 이
취 미	가 정	사회심리	학 력
사회적 사건	직 업	정 치	수 입
휴 가	지역사회	사 업	직 업
연 회	오 락	경 제	가 족 구 성
클럽 회 원	유 행	교 육	주 거
지역사회활동	음 식	제 품	지 리
구 매	매 체	미 래	도 시 규 모
운 동	성 취	문 화	생활주기단계

출처: Pllumer, J. T(1974)

2) Psychographics 분석법

Psychographics 분석법은 AIO 변수 군에 성격적·기질적 특성을 추가하여 개인의 심리적 경향, 욕구 패턴, 성격 유형에 관한 차원들을 도입하였으며, AIO 조사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개인의 특징적 변수들을 조사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채서일, 1992).

그러므로 소비자의 행동을 심리적인 면 예컨대 자기확신, 성취감 등 지각에 관련된 무형적 변수의 측정을 통하여 제품, 포장,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간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규명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을 밝혀내고 비해행동까지도 예측,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기, 이용학, 1992).

<표 2-4> 라이프스타일 분석방법

분 류	객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	주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
거시적 분석	사회 지표 분석	사회 심리와 소비자 수요 분석(Katona,G) - 대량현상으로서 소비자 심리분석
	생활의 질 지표분석	사회적 경향의 모니터 분석(Yankelovich,D) - 다수의 라이프스타일 변수에 의한 조사결과에 계량적 방법에 따라 몇 개의 사회적 경향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시계열분석이 초점임.
	인구통계적 요인의 추세분석	사회경향 예측분석(SRI) -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방향의 예측이나 생활의 질의 측정의 새로운 시도
미시적 분석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 분석 (직업, 소득, 연령 및 주거지 등에 의함	AIO법 - Wells와 Tigert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라이프스타일 변수를 명세화, 표준화 조작 가능한 형태로 변화사이코그래픽스 분석법
		(Psychographics approach) - 개인의 심리적 경향과 요구 패턴 등에 의한 소비자 분류.

출처 : 김원수, 마케팅 정보 시스템론(서울: 박영사, 1990), p.434 재구성

3. 만족

일반적으로 만족이란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 개념으로, 여가 활동만족이란 인간 행동의 일부 즉 여가 경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만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만족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Likert 척도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극으로서 사용된다(Jackson & Button, 1989).

Ragheb & Beard(1983)는 여가 만족이란 여가 활동에 참여 선택한 결과로서 얻어지거나 형성되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긍정적인 인지 정도이며, 개인의 일반적인 여가 경험과 상황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여가 시간에 추구된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만족도가 여가 시간에 경험한 그 자체의 실질적 수준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추구된 경험 수준과 현재의 경험 수준과의 불일치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가만족도란 개인의 적응 수준의 반영으로 보았다(박찬용,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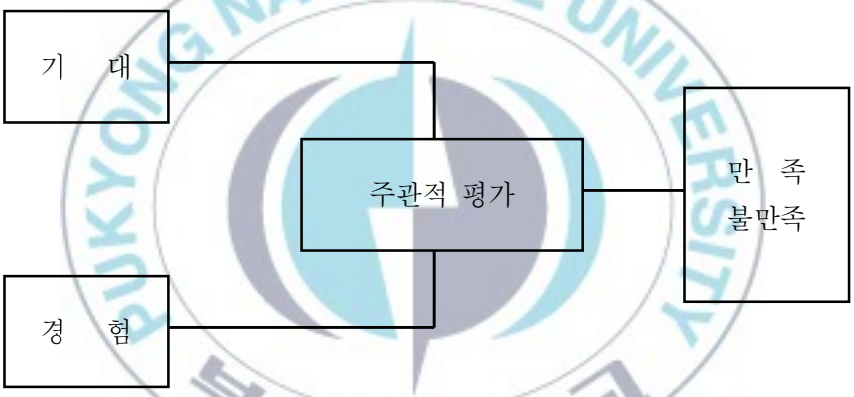
Driver(1976)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심리적 측면에서 원인적 요소와 결과적 요소로 구분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욕구(needs). 이유(reason), 동기(motivations)는 추구하게 될 원인적 요소로 만족도(satisfaction), 욕구충족(need satisfaction)과 심리적 결과(psychological outcome) 등은 결과적 요소로 보았다.

Hunt(1977)는 만족의 개념을 경험에서 출발한 형태로서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리 즐거운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기대한 것만큼 즐겁지 않으면 불만족'이라고 하여 만족/불만족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의 평가'라고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평가는 사람들이 이전부터 어떠한 활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호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Van Raajj(1987)는 '미리 기대한 수준과 실제로 경험한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한 감정의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만약에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 기분이 좋으면 만족한 것으로 보며, 그와는 달리 기대한 것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면 불만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가 참가자들의 만족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다. 즉, 만족은 이전의 기대와 이후의 경험이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으로, 이러한 주관적 평가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는 기대와 경험이라는 두 변수의 함수 관계로 <그림 2-1>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그림 2-1> 기대와 경험에 의한 주관적 만족도(박수정, 1996)

가. 만족도의 특성

참가자의 만족도 연구는 프로그램 제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용자에게는 좀 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가하고 많은 만족감과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캠핑, 낚시, 사냥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만족에 관한 개념적 모델이나 이론들은 개인의 요구·선호·필요·야망·기대에 관련된 실행과 구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만족도의 전반적인 측정은 너무 광범위할 뿐

만 아니라 많은 매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이라는 점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Propst와 Lime(1982)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기회를 한정하는 3가지 기본적 요인 1) 부지의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 2) 관리 운영 행위의 유형과 수준 3) 참가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한 참가자의 만족을 위해 경험의 자연과 구성 요소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Clerk(1971)은 야영장에서의 캠핑 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몇 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일치되기는 하지만 전문적 관리자들이 느끼는 지각이나 가치는 참가자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특별한 환경적 조건(경치, 날씨), 개인의 레크리에이션 목표와 대상(평화, 조용함, 휴식),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캠핑의 만족 경험과 관련이 있고, 악천후, 혼잡, 짜증나는 이웃의 캠핑인 들이 불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Ragheb와 Beard(1980)는 만족을 '관광 활동과 관광 선택에 참여한 결과로서 개인적으로 형성된 인식이나 감정 또는 일반적 관광 경험과 상황에 만족하거나 즐거워하는 정도'라 규정하고, 관광 활동의 만족을 동기 충족의 관점에서 심리적 요인에 의한 만족 13항목, 교육적 요인에 의한 만족 12항목, 사회적 요인에 의한 만족 11항목, 휴식적 요인에 의한 만족 4항목, 신체적 요인에 의한 만족 6항목, 환경적 요인에 의한 만족 5항목 등으로 나누어 유형화된 51개 지표의 만족도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제시하였다.

여가만족척도(LSS)는 여가 활동을 통해서 성취되거나 형성되는 개인적 욕구나 만족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여기서 여가 만족이란 개인이 선택한 여가 활동에 참여한 결과로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인지의 정도로써 정의될 수 있다(Ragheb & Beard, 1980). 즉, 일반적인 여가 경험이나 상황에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만족감이며, 이렇듯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감정은 개인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만족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여가만족척도(LSS)는 다음의 <표 2-5>에 잘 나타나 있다.

<표 2-5> 여가만족 척도(LSS)

항 목	내 용
심리적요인(Psychological Factors)	즐거움, 소속감, 자유의 정도
교육적요인(Educational Factors)	지적 환경, 학습
사회적요인(Social Factors)	대인유지, 사교
휴식적요인(Relaxational Factors)	휴식, 긴장감 해소
신체적요인(Physiological Factors)	건강, 체력유지, 신체개발
환경적요인(Aesthetic Factors)	아름다움, 미적 보상

출처: Ragheb & Beard(1980)

<표 2-5>에 나타나 있는 여가만족척도(LSS) 중 각각의 항목을 이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제공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내적으로 동기화(Brightbill, 1961; Neulinger, 1975; Gunn, 1977)되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Maslow, 1962; Sapora, 1975; Dumazedier, 1974). 더욱이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개인적 재능과 능력을 시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음과 동시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 요인으로서 사람들은 여가를 통해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 자신에 대해 학습하길 원한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의 추구, 호기심 만족을 위해 새로운 것이 제공되어져야 한다(Dumazedier, 1974).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서 사람은 자유롭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자 집단이나 혹은 협회에 참여하고자 한다. Dumazedier(1974)는 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②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의 제공, ③ 좋은 대인관계 유지가 자발적인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넷째, 휴식적 요인으로서 Patrick(1916)은 휴식에 관한 그의 이론에서 일로부터의 휴식으로서 스포츠와 놀이를 강조했다. 이러한 이론은 여가가 휴식, 삶과 노동으로부터의 긴장해소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다섯째, 신체적 요인으로서 사람들은 건강유지와 근력강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다(Kraus, 1971). 신체적 활동은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Oberteuffer, 1978).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서 Rutledge(1971)은 가시거리 내에 있는 모든 물체가 완벽하게 보여 질 때 강한 미적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참여하는 여가에 대한 물질적 환경이 아름답고 잘 꾸며졌을 때 좀 더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거 환경과 공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적인 환경 인자만을 고려하는 수행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욕구, 전체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모델제시 등이 제시되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대한 만족도 연구로 백재봉(1984)은 5개의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결정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성민(1984)은 3개의 도시 소공간을 대상으로 도시민의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임승민(1986)은 서울시 5개 소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만족 요인을 물리 생태적, 시각 미학적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여 소공원의 일반적인 계획 기준을 선정하였다.

한편 송상택(1987)의 '도시민의 실외여가 이용성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홍창근(1985)의 '직장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고찰' 등은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실외 레크

리에이션에 대한 의식의 연구이었다. 특정 여가 활동 즉, 스키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지현(1991)은 스키장을 도시 근교형과 리조트형으로 구분하여 스키장 이용자의 동기와 만족도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두 지역 간의 이용 동기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이용 형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재빈(2010)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마리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는 해양스포츠 이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해 마리나를 이용하고 이에 따라 각종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마리나 등)의 운영자들에게 고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리나 조성이 진행 중 이라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활용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레크리에이션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공원이나 주거환경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한곳으로 치중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특정 레크리에이션(생활체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시설(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시설 만족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스포츠(체육)시설 분포가 수요보다 적어서 시설이 설치되기만 하면 고객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스포츠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설 자체의 기능만으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설과 관련된 디자인이나 영업방법, 서비스형태 등의 종합적인 만족 여부가 고객 유입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객의 시설만족도는 특정 스포츠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작용되어 경쟁을 가속시켰으며 고객에게 파장된 이미지의 강도는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문화관광부(2004)에서 실시한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2.2%로서 2000년에 비해 13.4% 감소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0.8% 증가했으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대체로 읍·면 이하 지역과, 10대 및 저소득층의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체육시설의 균형적인 확충과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훈(1999)은 스포츠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지도자의 능력과 시설의 규모, 탈의실, 휴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완비여부에서는 만족하지만 주차장의 공간 확보, 프로그램의 적절성, 이용인원수의 분배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권정훈(2000)은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서는 주차시설, 셔틀버스 운행으로 조사되었다. 한정주(1999), 김상진(2001), 김동우(2001)의 연구에서도 이용자가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속시설에 대한 불만족요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재빈(2010)은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이용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부족한 부대시설과 인프라 부족 및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 등을 꼽고 있는 가운데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스포츠의 각종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 불만족에 따른 불평 및 부정적인 문제는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들이 사업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기를 희망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의식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이용자의 불평 및 부정적인 구전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불평 및 부정적 구매에 따른 비용의 증대를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방문(재방문 등)을 통한 이미지 향상에 부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선택행동

선택행동의도라는 용어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이 제품의 경우에는 구매의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구매의도, 또한 호텔 및 스포츠센터 등의 서비스분야의 경우 재이용의도, 관광지의 경우에는 재방문의도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바로 행동이다(최규환, 2005).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선택행동의도는 이용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행동의도는 소비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중요하며,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실행할 계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용자 행동연구에서 이용자의 이용만족과 이용의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해양스포츠 관련 연구에서도 이용자의 이용만족의 경과변수로서 재방문의도와 긍정적 구전의도(권유의도)를 이용자 방문의도, 즉 행동의 개념으로써 논의되어 왔다. 고동우(1998)는 전반적으로 관광지 이용자 시설이용만족과 함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가 관광경험 후속의 심리적 변수라고 하였다(이광문, 2007).

가. 재방문의도

재방문의도의 연구에서는 주로 고객만족을 중시하고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의 선행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Oliver, 1993).

소비자 행동분야에서 재구매의도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하여 재구매 가능성이 있거나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관광객(이용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Geva와 Goldman(1991)은 패키지여행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관광자(이용자)의 만족이 재방문이나 구전의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경험적인 자료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존의 기대가치 모형의 기본전제가 인지 일관성(cognitive consistency)에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여러 사후 태도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의 통로를 통해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이용자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더라도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는 낮을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이용자가 인지부조화를 경험한 후 합리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와의 관계는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Anderson, 1994; Bitner, 1990; Bolton & Drew, 1991).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관광분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광문(2007)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자가용 여행자들의 만족을 측정하였으며, 그들은 여행 전 기대, 여행에서의 성과, 기대불일치, 만족 그리고 재구매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여행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광자원이 관광자, 즉 이용자만족과 재 방문의도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Richeld(1993)는 관광객(이용자) 만족이 관광마케팅과 직접 연계될 수 있으며, 만족한 관광객은 관광목적지에 재방문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잠재관광객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충성도가 높은 기존의 고객은 더 많은 양을 자주 구매하고 경쟁기업의 가격유인에 덜 민감하여 높은 가격에도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기도 하여 기업이익증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도(intention)란 미래의 행동으로 신념과 태도를 행위로 옮겨질 확률이라 할 수 있다(Engel & Blackwell, 1982).

서성한(2000)은 좋은 물적 환경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좋게 형성되어 구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용자 혹은 소비자가 불만족한 경우 타인에게 구전(Negative word-of-mouth)을 전하며 재방문 및 재 구매를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불평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특히 불평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 정도와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지삼업, 이재빈(2009)은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각종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방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높을수록 재방문의 의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재방문의도는 향후 해양스포츠의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의 질과 부대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전의도

구전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상업적 이익의 증가를 생각하지 않고 수행하는 비공식적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지칭한다. 관광객 간의 구전은 마케팅 연구나 관광객 심리분야에서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서비스 마케팅의 연구나 소비자 불만족의 연구에 구전의 흐름과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이광문, 2007).

구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자의 반응에서 중시된다.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이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되어 다른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큰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고, 둘째,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고, 고객들에게 원천을 두고 있으므로 더욱더 신뢰적인 정보의 원천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셋째, 불평행동이 구매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반해 구전은 많은 사람들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전행위의 주 결정요인으로는 이용자가 느끼는 만족과 불만족이 표시된다. 그런 이유로 고객만족의 결과로서 구전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김두하, 1999).

특히 부정적 구전의 효과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정적 구전이란 불만족한 이용객이 친구, 이웃, 친지 등에게 회사나 제품, 종업원 등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전효과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 첫째,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둘째,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여러 사람의 입과 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매우 손상시키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구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만족한 고객이 직접 기업이나 판매업자, 종업원 등에 불평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훨씬 우호적인 구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김성곤, 1998).

많은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친구나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듣고자 하며, 또한 관광객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구전을 가장 정확한 정보로 간주하면서 구매결정을 할 때 주된 정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 구전에 대하여 관광객의 행동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미친다는 현상은 널리 연구되어 왔다(Kotler, 1997; 전기환, 1998).

관광객 만족은 관광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욕구가 충족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귀옥, 2001)으로서 관광자 자신의 총체적 관광자 경험에 대한 평가이며, 구전은 관광지의 여러 속성과 관련한 체험에 근거하여 그 개인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구전할 의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체적 만족이 관광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면 추천의도는 관광지 관련 체험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광객의 만족이 긍정적인 구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김두하(1998)는 추천이 긍정적 구전의 한 종류이며 추천의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타인에게 알

려주고자 하는 정도라고 하였고, 지삼업, 이재빈, 임재현, 이호, 김정철(2010)은 마리나의 물질적 환경이 이용자들의 만족 및 재방문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의도, 고객태도, 고객신뢰 등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만족을 활용할 수 있는 소비관련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해양스포츠 이용자가 가장 많고 활성화 된 지역인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경기도(청평호), 경남(거제도), 서울(한강 뚝섬), 포항(북부 해수욕장)에서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앞서 예비 조사를 2회(4월, 5월)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2010년 7월, 8월 2개월간 대상지의 마리나 및 해수욕장, 호소 등을 방문하여 해양스포츠에 참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100부, 청평호 100부, 거제도 100부, 한강 뚝섬 100부, 포항 100부 총 500부의 응답을 받았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결측 값이 있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46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1>과 같다. 총 응답자는 462명으로 남자가 313명(67.7%), 여자가 149명(32.3%)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135명(2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40대가 134명(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266명(57.6%), 미혼이 196명(42.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204명(44.2%), 다음으로 고졸이 130명(28.1%)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201만원~300만원이 104명(2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업으로는 사무·근로직이 146명(3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타가 122명(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형태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13	67.7
	여자	149	32.3
연령	20대 이하	109	23.6
	30대	135	29.2
	40대	134	29.0
	50대 이상	84	18.2
결혼여부	기혼	266	57.6
	미혼	196	42.4
교육수준	고졸	130	28.1
	대재	97	21.0
	대졸	204	44.2
	대학원이상	31	6.7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	145	31.4
	201~300만원	104	22.5
	301~400만원	86	18.6
	401만원 이상	127	27.5
직업	전문관리직	89	19.3
	사무·근로직	146	31.6
	자영업	105	22.7
	기타	122	26.4
전체		462	100

응답자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시간은 4시간 초과가 140명(30.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시간 이하가 132명(28.6%)으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주(週) 중 이용기간으로는 휴일이 362명(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당 이용횟수로는 주1회와 주2회가 각각 280명(60.6%), 103명(22.3%)으로 높게 나타났고, 참여기간으로는 3년 이상이 248명(53.7%)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구분으로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289명(62.6%)으로 많이 나타났고, 해양스포츠 이용 장소로는 활동 기본시설이 전무한 바다와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마리나 등)가 각각 257명(55.6%), 156명(33.8%)으로써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형태

구분	형태	빈도	퍼센트
참여 시간	1시간이하	132	28.6
	2시간이하	63	13.6
	3시간이하	55	11.9
	4시간이하	72	15.6
	4시간초과	140	30.3
주일 중 이용 기간	주중	79	17.1
	휴일	362	78.4
	전일	21	4.5
주당 이용횟수	주1회	280	60.6
	주2회	103	22.3
	주3회 이상	79	17.1
이용 기간	1년 미만	128	27.7
	1년~3년 미만	86	18.7
	3년 이상	248	53.7
참여 구분	동호회	99	21.4
	개인	289	62.6
	아카데미(강습회)	74	16.0
이용 장소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마리나 등)	156	33.8
	바다	257	55.6
	강	20	4.3
	호소(湖沼)	4	0.9
	기타	25	5.4

2. 조사도구

가. 조사도구의 구성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써 설문문항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측정도구의 구성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교육수준, 월 소득, 참여빈도, 직업 등	14
라이프스타일	스포츠형, 유행형, 허무주의형, 성취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 생활배려형, 안전형	51
만족	참여만족, 시설만족	13
선택행동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7

1) 라이프스타일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조충현(2001)과 박창열(2002)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라이프스타일 특성인 스포츠형, 유행형, 허무주의형, 성취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 생활배려형, 안전형의 9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만족

이 연구에서 사용할 참여만족에 대한 문항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은 Beard와 Ragheb(1980)가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토대로 이기화(2005)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기초로 구성한 내용과 윤상진(2009)의 조정스쿨(Rowing School) 참여자의 참여동기 및 만족도가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및 지삼업, 이재빈(2009), 이재빈(2010), 지삼업 외(2010), 지삼업, 이재빈, 배영훈(2009)의 선행연구들의 해양스포츠 관련 만족도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선택행동

이 연구에서 사용할 참여만족에 대한 문항을 분석하기 위해 Engel & Blackwell(1982)가 제시한 소비자(이용객)의 의사결정과정을 토대로 김철우(2004)의 스포츠관광의 참여동기, 관광지 속성평가가 재 참가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광문(2007)의 스포츠관광 환경요인과 선택행동의 관계와 지삼업, 이재빈, 배영훈(2009)의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이용객의 시설만족도가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재빈, 배영훈, 지삼업(2009), 이재빈(2010)의 마리나 이용객의 시설만족이 방문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조사 절차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 행동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해양스포츠 이용자가 가장 많고 활성화된 지역인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경기도(청평호), 경남(거제도), 서울(한강 뚝섬), 경북(포항 북부 해수욕장)에서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연구자와 조사원이 앞의 대상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회수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인구통계학: 빈도분석실시
2) 타당성 및 신뢰성: 요인분석 및 Cronbach′α 분석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참여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독립 2집단 t-test 및 ANOVA, 사후검정 실시
4)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다중공선성 검정, 입력방식: enter 방식

5.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이 연구에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구성타당도이었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타당도의 형태이다(Allen & Yen, 197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요인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Kim & Muller, 1978).

요인 추출은 반복적 추축인자법과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용인 행렬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타당도의 기준은 그 절대 값이 0.5이상이면 1% 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0.5보다 큰 요인적재치를 이용하였다(김병수 외, 1987).

신뢰도는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여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이며(김종택, 1988), 연구 방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조사 대상자의 인지적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할 여지가 많다는 점(Allen & Yen, 1979)에서 대상자의 인지적 경험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항목과 전체 항목간의 상관관계와 요인적재치를 고려하여 반복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있어서 먼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본래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보다 적은 수의 합성변수로 요약하는 R-type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교회전(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5>와 같다. 분석결과 총 51개 문항에서 19개 문항이 요인부하량 기준치인 0.5를 넘지 못하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으로 로딩(loading) 되어, 그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총 32개의 문항으로 9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9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이 77.18%로 나타나 해양스포츠를 참여하는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항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명명된 인자는 유행형, 스포츠형, 성취형, 허무주의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 생활배려형, 안전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요인 1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6문항이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b37로 0.90으로 나타났다. 또한 b38, b36, b42, b41, b51은 유행이나 패션에 민감한 태도를 나타내어 “유행형”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을 보인 문항은 5문항이며 b13, b16, b9, b8, b33은 스포츠에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스포츠형”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4문항이며 b26, b27, b32, b34는 자신의 성취욕구를 강하게 나타내어 “성취형”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4문항이며 b45, b6, b47, b5는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 “허무주의형”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3문항이며 b2, b3, b1은 자신 있는 확신을 나타내 “자기확신형”로 명명하였다. 요인 6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3문항이며

b50, b48, b49는 강한 의견을 나타내어 “개성형”로 명명하였다. 요인 7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3문항이며 b18, b15, b17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건강관리형”로 명명하였다. 요인 8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2문항이며 b22, b21은 생활의 태도를 나타내 “생활배려형”로 명명하였다. 요인 9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을 보인 문항은 2문항이며 b35, b44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을 구매한다는 태도를 나타내 “안전형”로 명명하였다.

참여제약 각 요인별로 각각의 척도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는 0.677~0.937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줌으로서 이 연구의 설문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설문문항은 다음 <표 3-4>와 같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3-4>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스포츠형	b13	스포츠나취미에대하여얼마든지이야기할수있으며이야기하는것이좋다.
	b16	나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b9	스포츠는 피곤한 신경을 따뜻하게 해준다.
	b8	나는 좋아서 하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다.
	b33	나는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조성에 힘쓰고 있다.
유행형	b37	나는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즐겁다.
	b38	나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패션을 중요시 한다.
	b36	나는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b42	나는 양복은 대부분의 경우 유행에 따른다.
	b41	나는 유행에 관한 기사나 화제에 관심이 있다.
	b51	나는 양복 등을 살 경우 비교적 눈에 띄는 것을 사는 편이다.
허무주의형	b45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쩐지 공허하다.
	b6	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활이 어렵다.
	b47	나는 무엇을 해도 잘되지 않는 것이 많다.
	b5	나는 지금의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성취형	b26	나 자신의 목표를 정해 그것을 완수하는 타입이다.
	b27	나는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b32	나는 용건이 생기거나, 생각해 낸 것은 곧 실행해 시작하는 편이다.
	b34	나는 노는 것에서나 일하는 것에서도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열중해서 어떻게든 하는 편이다.
자기확신형	b2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운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b3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b1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체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개성형	b50	나는 타인과는 조금 다른 개성적인 생활태도를 하고 있다.
	b48	나는 평균적인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생활의 방법을 하고 있다.
	b49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은 생활의 방법을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건강관리형	b18	나는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b15	과음(술)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b17	나는신체의노화현상은운동을하면어느정도방지할수있다고생각한다.
생활배려형	b22	나는 건강을 위해 수면을 충분히 취하려고 한다.
	b21	나는 건강을 위해 식사에 신경을 쓴다.
안전형	b35	나는 양복 등을 살 경우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을 사는 편이다.
	b44	나는 오래된 것은 긴 시간 계속 계승되어 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닌다.

<표 3-5>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스포츠형	b13	0.044	0.820	0.082	0.090	0.106	0.032	0.079	0.051	-0.065
	b16	0.024	0.812	0.152	0.115	0.117	-0.006	0.266	0.081	-0.018
	b9	0.022	0.810	0.172	0.079	0.137	0.039	0.024	0.088	0.112
	b8	0.096	0.800	0.024	0.176	0.210	-0.014	0.061	-0.029	0.033
	b33	0.139	0.662	0.304	0.101	0.142	0.106	0.135	0.226	0.025
유행형	b37	0.906	0.061	0.012	0.026	0.060	0.071	-0.001	0.067	0.014
	b38	0.882	0.012	-0.021	0.059	0.029	0.128	0.063	0.022	-0.072
	b36	0.877	0.068	0.048	0.050	0.121	0.087	0.058	0.039	0.026
	b42	0.845	0.001	0.062	-0.040	0.001	0.088	-0.025	0.103	0.029
	b41	0.840	0.090	0.050	-0.049	0.002	0.081	-0.009	0.112	0.074
	b51	0.807	0.060	0.047	-0.050	0.055	0.225	-0.008	0.071	-0.030
허무주의형	b45	-0.043	0.123	0.112	0.831	0.079	-0.075	0.038	0.088	-0.038
	b6	0.092	0.113	0.171	0.830	0.052	0.001	0.037	-0.075	0.041
	b47	-0.060	0.046	0.068	0.821	0.106	-0.029	-0.076	0.051	-0.002
	b5	0.005	0.179	0.041	0.812	0.017	-0.054	0.087	-0.023	-0.047
성취형	b26	0.085	0.135	0.820	0.197	0.085	-0.066	0.109	0.071	0.016
	b27	0.012	0.102	0.818	0.054	0.047	-0.031	0.092	0.048	0.077
	b32	0.011	0.144	0.812	0.057	0.124	0.169	0.047	0.082	0.036
	b34	0.065	0.172	0.801	0.115	0.100	0.036	0.101	0.114	0.114
자기확신형	b2	0.085	0.179	0.091	0.054	0.903	0.084	0.018	-0.020	0.026
	b3	0.062	0.224	0.134	0.107	0.877	0.066	0.016	-0.039	0.051
	b1	0.083	0.216	0.127	0.110	0.872	0.069	-0.001	-0.009	0.093
개성형	b50	0.229	0.100	0.044	0.003	0.167	0.857	-0.006	0.051	0.005
	b48	0.153	0.014	0.007	-0.087	0.041	0.846	-0.028	0.037	-0.003
	b49	0.199	-0.003	0.043	-0.066	0.009	0.844	0.070	-0.047	0.011
건강관리형	b18	0.030	0.064	0.042	0.039	-0.028	0.008	0.885	0.071	0.031
	b15	0.033	0.136	0.121	-0.017	-0.016	0.049	0.822	0.046	0.060
	b17	-0.020	0.232	0.172	0.057	0.089	-0.029	0.812	0.153	0.090
생활배려형	b22	0.158	0.169	0.128	0.008	-0.017	-0.030	0.155	0.875	0.071
	b21	0.227	0.115	0.174	0.033	-0.059	0.068	0.117	0.866	0.010
안전형	b35	-0.107	0.021	0.104	-0.100	0.039	-0.111	0.036	0.071	0.868
	b44	0.144	0.031	0.107	0.054	0.110	0.129	0.134	0.001	0.836
고유값		4.740	3.485	3.017	2.910	2.588	2.369	2.340	1.705	1.541
누적분산		14.813	25.705	35.134	44.229	52.317	59.719	67.031	72.358	77.175
신뢰도계수값		0.937	0.888	0.871	0.863	0.921	0.853	0.835	0.852	0.677

나. 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해양스포츠를 참여하는 참가자의 만족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방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분석결과 총 13개 문항에서 기준치에 못 미쳐 제거된 문항은 없으며, 따라서 만족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2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2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이 74.82%로 나타나 해양스포츠를 참여하는 참가자의 만족에 대한 문항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명명된 인자는 참여만족, 시설만족으로 분류하였다. 요인 1에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을 보인 문항은 9문항이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용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c2로 0.88로 나타났다. 또한 c4, c5, c6, c1, c3, c12, c13, c11은 “참여만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을 보인 문항은 4문항이며 c10, c7, c8, c9는 “시설만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참여제약 각 요인별로 각각의 척도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는 0.912~0.95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줌으로서 이 연구의 설문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설문문항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만족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참여만족	c2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c4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c5	참여는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c6	참여는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
	c1	참여는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c3	참여는 체력의 증진에 효과적이다.
	c12	참여는 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c13	참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c11	참여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시설만족	c10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c7	시설 및 장소는 보기가 좋다.
	c8	시설 및 장소는 흥미를 갖게 한다.
	c9	시설 및 장소는 경치가 좋다.

<표 3-7> 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요인1	요인2
참여만족	c2	0.880	0.179
	c4	0.847	0.286
	c5	0.832	0.307
	c6	0.801	0.355
	c1	0.791	0.215
	c3	0.776	0.340
	c12	0.740	0.382
	c13	0.701	0.351
	c11	0.672	0.481
시설만족	c10	0.159	0.848
	c7	0.382	0.835
	c8	0.409	0.824
	c9	0.320	0.805
고유값		5.985757	3.740671
누적분산		46.04429	74.81868
신뢰도계수값		0.950	0.912

다. 선택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선택행동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직교회전 방식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분석결과 총 7개 문항에서 기준치에 못 미쳐 제거된 문항은 없으며, 따라서 선택행동은 총 7개의 문항으로 2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2개 요인의 누적 분산율이 87.79%로 나타나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선택행동에 대한 문항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명명된 인자는 재방문의도, 권유의도로 분류하였다. 요인 1에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을 보인 문항은 4문항이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용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은 d3로 0.88로 나타났다. 또한 d1, d2, d4는 “재방문의도”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을 보인 문항은 3문항이며 d6, d7, d5는 “구전의도”라고 명명하였다.

참여제약 각 요인별로 각각의 척도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는 0.942~0.947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줌으로서 이 연구의 설문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설문문항은 다음 <표 3-8>와 같다.

<표 3-8> 선택행동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재방문의도	d3	확실히 다시 참여할 것이다.
	d1	다시 참여할 것이다.
	d2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d4	다시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구전의도	d6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 할 것이다.
	d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d5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다.

<표 3-9> 선택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요인1	요인2
재방문의도	d3	0.889	0.308
	d1	0.865	0.345
	d2	0.853	0.365
	d4	0.787	0.443
구전의도	d6	0.332	0.901
	d7	0.371	0.891
	d5	0.397	0.839
고유값		3.291	2.854
누적분산		47.016	87.793
신뢰도계수값		0.942	0.947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연구결과

1.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에는 2집단 평균차이검정인 t-test, 3집단 이상의 평균차이검정인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대한 유의도 기준은 5%로 설정하였으며, ANOVA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라이프스타일의 평균 차이분석

1) 성별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독립 2집단 t-est를 실시하였으며 <표 4-1>과 같다.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스포츠형은 여자의 평균(2.59±1.08)이 남자의 평균(2.53±0.9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남자의 평균(4.02±1.32)이 여자의 평균(3.77±1.36)보다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남자의 평균(2.78±1.28)이 여자의 평균(2.64±1.1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여자의 평균(2.71±0.99)이 남자의 평균(2.96±1.0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남자의 평균(3.13±1.18)이 여자의 평균(3.03±1.2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남자의 평균(3.98±1.38)이 여자의 평균(3.66±1.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여자의 평균(2.26±1.2)이 남자의 평균(2.2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여자의 평균(3.24±1.27)이 남자의 평균(3.15±1.3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남자의 평균(3.53±1.18)이 여자의 평균(3.49±1.2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남자	여자	t-value
스포츠형	2.53(0.98)	2.59(1.08)	-0.645
유행형	4.02(1.32)	3.77(1.36)	1.827
허무주의형	2.78(1.28)	2.64(1.19)	1.066
성취형	2.69(1.00)	2.71(0.99)	-0.201
자기확신형	3.13(1.18)	3.03(1.22)	0.869
개성형	**3.98(1.38)**	**3.66(1.38)**	**2.282***
건강관리형	2.21(1.1.00)	2.26(1.20)	-0.490
생활배려형	3.15(1.37)	3.24(1.27)	-0.701
안전형	3.53(1.18)	3.49(1.26)	0.311

*: p<0.05

2) 연령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2>와 같다.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라 스포츠형은 40대의 평균(2.66±0.9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평균(2.38±0.9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50대의 평균(4.50±1.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평균(3.44±1.3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20대의 평균(2.92±1.4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평균(2.60±1.1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20대의 평균(2.81±1.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의 평균(2.59±0.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50대의 평균(3.71±0.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평균(2.65±1.1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40대의 평균(4.30±1.3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평균(3.23±1.1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40대의 평균(2.38±1.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의 평균(2.04±0.9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20대의 평균(3.33±1.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의 평균(2.99±1.2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40대의 평균(3.61±1.0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평균(3.37±1.2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20대이하[a]	30대[b]	40대[c]	50대 이상[d]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55(1.16)	2.38(0.94)	2.66(0.91)	2.63(1.03)	2.022	
유행형	**3.44(1.33)**	**3.66(1.12)**	**4.27(1.26)**	**4.50(1.44)**	**16.120*****	**d>c>a,b**
허무주의형	2.92(1.40)	2.60(1.16)	2.72(1.28)	2.73(1.15)	1.270	
성취형	2.81(1.20)	2.66(0.92)	2.72(0.93)	2.59(0.90)	0.858	
자기확신형	**2.65(1.17)**	**2.98(1.25)**	**3.21(1.10)**	**3.71(0.95)**	**14.659*****	**d>a,c>b**
개성형	**3.23(1.19)**	**3.81(1.30)**	**4.30(1.37)**	**4.13(1.47)**	**14.270*****	**c,d>b>a**
건강관리형	2.18(1.20)	2.23(1.16)	2.38(1.16)	2.04(0.91)	1.601	
생활배려형	3.33(1.46)	3.06(1.30)	3.31(1.32)	2.99(1.23)	1.761	
안전형	3.37(1.27)	3.54(1.18)	3.61(1.06)	3.51(1.34)	0.808	

***: p<0.001

3) 결혼여부

결혼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독립 2집단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표 4-3>와 같다.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스포츠형은 기혼이 평균(2.59±0.93)이 미혼의 평균(2.49±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인형은 기혼의 평균(4.22±1.30)이 미혼의 평균(3.55±1.29)보다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미혼의 평균(2.83±1.34)이 기혼의 평균(2.66±1.1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미혼의 평균(2.76±1.09)이 기혼의 평균(2.66±0.9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기혼의 평균(3.30±1.07)이 미혼의 평균(2.83±1.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기혼의 평균(4.26±1.35)이 미혼의 평균(3.36±1.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기혼의 평균(2.25±1.07)이 남자의 평균(2.20±1.2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기혼의 평균(3.27±1.20)이 미혼의 평균(3.07±1.4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기혼의 평균(3.58±1.14)이 미혼의 평균(3.43±1.2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결혼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기혼	미혼	t-value
스포츠형	2.59(0.93)	2.49(1.11)	0.991
유행형	**4.22(1.30)**	**3.55(1.29)**	**5.471*****
허무주의형	2.66(1.18)	2.83(1.34)	-1.440
성취형	2.66(0.92)	2.76(1.09)	-1.046
자기확신형	**3.30(1.07)**	**2.83(1.29)**	**4.313*****
개성형	**4.26(1.35)**	**3.36(1.26)**	**7.275*****
건강관리형	2.25(1.07)	2.20(1.21)	0.477
생활배려형	3.27(1.2)	3.07(1.49)	1.562
안전형	3.58(1.14)	3.43(1.28)	1.371

***: p<0.001

4)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4>와 같다.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스포츠형은 고졸, 대학원이상의 평균(2.69±1.00, 2.69±1.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의 평균(2.46±0.9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고졸의 평균(4.37±1.1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3.46±1.3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고졸의 평균(2.90±1.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이상의 평균(2.52±1.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대재의 평균(2.77±1.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대학원이상의 평균(2.64±0.86, 2.64±0.9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대학원이상의 평균(3.66±1.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2.66±1.1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고졸의 평균(4.12±1.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3.37±1.2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고졸의 평균(2.28±1.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2.19±1.2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대재의 평균(3.35±1.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이상의 평균

(2.52±1.0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고졸의 평균(3.62±1.2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3.39±1.2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고졸[a]	대재[b]	대졸[c]	대학원이상[d]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69(1.00)	2.49(1.09)	2.46(0.96)	2.69(1.04)	1.705	
유행형	**4.37(1.17)**	**3.46(1.39)**	**3.88(1.34)**	**3.99(1.32)**	**9.175*****	**a>c,c>b**
허무주의형	2.90(1.28)	2.88(1.44)	2.59(1.14)	2.52(1.11)	2.422	
성취형	2.76(1.04)	2.77(1.20)	2.64(0.86)	2.64(0.92)	0.560	
자기확신형	**3.31(1.14)**	**2.66(1.17)**	**3.09(1.10)**	**3.66(1.57)**	**8.438*****	**d>a,c>b**
개성형	**4.12(1.38)**	**3.37(1.29)**	**3.99(1.38)**	**3.67(1.32)**	**6.698*****	**a,c>d>b**
건강관리형	2.28(1.23)	2.19(1.23)	2.20(1.04)	2.27(0.96)	0.168	
생활배려형	**3.31(1.25)**	**3.35(1.57)**	**3.12(1.28)**	**2.52(1.04)**	**3.662***	**b,a>c>d**
안전형	3.62(1.23)	3.39(1.28)	3.50(1.16)	3.60(1.06)	0.758	

***: $p<0.001$, *:$p<0.05$

5) 소득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5>와 같다.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스포츠인자는 101~200만원의 평균(2.60±1.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1~400만원의 평균(2.49±0.8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인자는 301~400만원의 평균(4.18±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1만원 이상의 평균(3.83±1.4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인자는 101~200만원의 평균(3.21±1.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의 평균(2.40±1.02, 2.40±1.0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인자는 101~200만원의 평균(2.84±1.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1~400만원의 평균(2.57±0.8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인자는 401만원 이상의 평균(3.34±1.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만원의 평균(2.96±1.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인자는 301~400만원의 평균(4.02±1.5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200만원의 평균(3.66±1.3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인자는 401만원 이상의 평균(2.41±1.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만원의 평균(2.12±0.9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인자는 301~400만원의 평균(3.27±1.2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

만원의 평균(3.10±1.3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자는 301~400만원의 평균(3.80±1.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만원의 평균(3.33±1.0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소득수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200만원 이하[a]	201~300만원[b]	301~400만원[c]	401만원 이상[d]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60(1.12)	2.50(0.96)	2.49(0.87)	2.57(1.01)	0.327	
유행형	3.92(1.32)	3.89(1.25)	4.18(1.29)	3.83(1.45)	1.252	
허무주의형	**3.21(1.43)**	**2.76(1.18)**	**2.40(1.02)**	**2.40(1.05)**	**12.923*****	**a>b>c,d**
성취형	2.84(1.18)	2.70(0.91)	2.57(0.88)	2.63(0.88)	1.595	
자기확신형	3.06(1.38)	2.96(1.11)	3.00(0.94)	3.34(1.15)	2.440	
개성형	3.66(1.37)	3.93(1.12)	4.02(1.52)	3.98(1.49)	1.773	
건강관리형	2.14(1.13)	2.12(0.94)	2.22(1.15)	2.41(1.25)	1.763	
생활배려형	3.14(1.37)	3.10(1.32)	3.27(1.26)	3.23(1.37)	0.364	
안전형	3.45(1.21)	3.33(1.07)	3.80(1.20)	3.55(1.26)	2.627	

***: p<0.001

6) 직업

직업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6>과 같다. 결과를 보면, 직업에 따라 스포츠형은 사무·근로직의 평균(2.69±1.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의 평균(2.39±0.8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사무·근로직의 평균(4.27±1.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3.51±1.4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기타직업의 평균(2.98±1.4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2.45±1.1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기타직업의 평균(2.96±1.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2.43±0.8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사무 관리직의 평균(3.38±0.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직업의 평균(2.77±1.3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자영업의 평균(4.27±1.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직업의 평균(3.40±1.1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사무·근로직의 평균(2.29±1.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직업의 평균(2.13±1.1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자영업의 평균(3.31±1.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

(2.79±1.2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사무·근로직의 평균(3.62±1.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3.35±1.2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직업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전문 관리직[a]	사무·근로직[b]	자영업[c]	기타[d]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39(0.86)**	**2.69(1.04)**	**2.56(1.01)**	**2.48(1.06)**	**10.808*****	**b>c,d>a**
유행형	3.51(1.42)	4.27(1.32)	4.23(1.26)	3.61(1.20)	1.940	
허무주의형	**2.45(1.19)**	**2.69(1.21)**	**2.74(1.13)**	**2.98(1.40)**	**3.272***	**d>c,c>a**
성취형	**2.43(0.84)**	**2.73(0.92)**	**2.60(0.99)**	**2.96(1.13)**	**5.540****	**d>b,c>a**
자기확신형	**3.14(1.17)**	**3.38(0.98)**	**3.06(1.19)**	**2.77(1.35)**	**6.121*****	**b>a,c>d**
개성형	**3.51(1.39)**	**4.22(1.47)**	**4.27(1.25)**	**3.40(1.16)**	**13.717*****	**c,b>a>d**
건강관리형	2.25(1.17)	2.29(1.15)	2.23(1.12)	2.13(1.10)	0.484	
생활배려형	**2.79(1.23)**	**3.23(1.29)**	**3.31(1.32)**	**3.30(1.44)**	**3.270***	**c,d,b>a**
안전형	3.35(1.27)	3.62(1.25)	3.61(1.09)	3.43(1.17)	1.366	

***: p<0.001, **: p<0.01, *: p<0.05

나. 만족의 평균차이 분석

1) 참여만족

성별에 따른 참여만족의 비교를 위해 독립 2집단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표 4-7>와 같다. 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남자의 평균(2.66±1.03)이 여자의 평균(2.52±0.9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50대의 평균(2.68±0.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평균(2.46±1.1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기혼의 평균(2.71±0.94)이 미혼의 평균(2.49±1.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고졸의 평균(2.70±0.9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2.51±1.2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301~400만원의 평균(2.78±1.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만원의 평균(2.50±0.8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자영업의 평균(2.73±0.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의 평균(2.47±0.9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만족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value	사후검정
성별	남자	2.66(1.03)	1.324	
	여자	2.52(0.96)		
연령	20대	2.46(1.10)	1.125	
	30대	2.65(1.09)		
	40대	2.66(0.92)		
	50대	2.68(0.87)		
결혼여부	**기혼**	**2.705(0.938)**	**2.254***	
	미혼	**2.491(1.089)**		
교육수준	고졸	2.70(0.93)	0.697	
	대재	2.51(1.23)		
	대졸	2.60(0.96)		
	대학원이상	2.68(0.88)		
소득수준	101~200만원	2.66(1.16)	1.581	
	201~300만원	2.50(0.88)		
	301~400만원	2.78(1.04)		
	401만원 이상	2.54(0.88)		
직업	전문관리직	2.47(0.90)	1.787	
	사무·근로직	2.70(1.06)		
	자영업	2.73(0.87)		
	기타	2.52(1.12)		

*: $p<0.05$

2) 시설만족

시설만족은 남자의 평균(2.98±1.13)이 여자의 평균(2.80±1.1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해서는 50대의 평균(3.07±1.0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평균(2.745±1.1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기혼의 평균(3.01±1.09)이 미혼의 평균(2.81±1.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대학원이상의 평균(3.41±1.4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재의 평균(2.79±1.1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301~400만원의 평균(3.04±1.0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200만원의 평균(2.81±1.1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자영업의 평균(3.12±1.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의 평균(2.75±1.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value	사후검정
성별	남자	2.98(1.13)	1.632	
	여자	2.80(1.14		
연령	20대	2.75(1.16)	1.913	
	30대	2.85(1.12)		
	40대	3.04(1.18)		
	50대	3.07(1.05)		
결혼여부	기혼	3.01(1.09)	1.821	
	미혼	2.81(1.19)		
교육수준	고졸	2.95(1.15)	2.457	
	대재	2.79(1.19)		
	대졸	2.89(1.04)		
	대학원 이상	3.41(1.45)		
소득수준	101~200만원	2.81(1.17)	0.904	
	201~300만원	2.90(1.10)		
	301~400만원	3.04(1.01)		
	401만원 이상	2.99(1.21)		
직업	전문관리직	2.75(1.11)	2.028	
	사무·근로직	2.96(1.17)		
	자영업	3.12(1.10)		
	기타	2.84(1.14)		

다. 선택행동의 평균차이 분석

1) 재방문 의도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남자의 평균(2.78±1.23)이 여자의 평균(2.52±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40대의 평균(2.78±1.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평균(2.57±1.2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결혼유의 평균(2.69±1.02)이 미혼의 평균(2.71±1.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대재의 평균(2.86±1.6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이상의 평균(2.50±1.1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301~400만원의 평균(2.78±1.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만원의 평균(2.62±1.2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자영업의 평균(2.78±1.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2.52±0.9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재방문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value	사후검정
성별	남자	2.78(1.23)	2.232*	
	여자	2.52(1.11)		
연령	20대 이하	2.74(1.40)	0.763	
	30대	2.57(1.21)		
	40대	2.78(1.15)		
	50대 이상	2.70(0.95)		
결혼여부	기혼	2.69(1.02)	-0.146	
	미혼	2.71(1.39)		
교육수준	고졸	2.81(1.09)	1.903	
	대재	2.86(1.62)		
	대졸	2.58(1.01)		
	대학원 이상	2.50(1.12)		
소득수준	101~200만원 이하	2.70(1.28)	0.315	
	201~300만원	2.62(1.26)		
	301~400만원	2.78(1.28)		
	401만원 이상	2.70(0.97)		
직업	전문관리직	2.52(0.96)	0.932	
	사무·근로직	2.75(1.17)		
	자영업	2.78(1.14)		
	기타	2.68(1.41)		

*:p<0.05

2) 구전의도

구전의도는 남자의 평균(2.69±1.29)이 여자의 평균(2.42±1.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해서는 50대의 평균(2.70±1.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의 평균(2.57±1.15, 2.57±1.2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미혼의 평균(2.69±1.61)이 결혼유의 평균(2.55±1.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대재의 평균(2.8±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의 평균(2.51±1.0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해서는 101~200만원의 평균(2.68±1.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1만원 이상의 평균(2.54±1.01)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사무·근로직의 평균(2.74±1.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관리직 평균(2.30±0.8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value	사후검정
성별	**남자**	**2.69(1.29)**	**2.117***	
	여자	**2.42(1.30)**		
연령	20대 이하	2.63(1.68)	0.229	
	30대	2.57(1.15)		
	40대	2.57(1.22)		
	50대 이상	2.70(1.09)		
결혼여부	기혼	2.55(1.01)	-1.137	
	미혼	2.69(1.61)		
교육수준	고졸	2.62(1.19)	1.104	
	대재	2.80(1.87)		
	대졸	2.51(1.03)		
	대학원 이상	2.56(1.14)		
소득수준	101~200만원 이하	2.68(1.57)	0.278	
	201~300만원	2.58(1.31)		
	301~400만원	2.61(1.17)		
	401만원 이상	2.54(1.01)		
직업	전문관리직	2.30(0.89)	2.398	
	사무·근로직	2.74(1.21)		
	자영업	2.57(1.11)		
	기타	2.70(1.71)		

*:p<0.05

2.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 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에는 2집단 평균검정이 독립 2집단 t-test 검증과 3집단 이상의 평균검정인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대한 유의도 기준은 5%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ANOVA에서 집단 간 분류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라이프스타일의 평균차이 분석

1) 참여시간

참여시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11>과 같다. 결과를 보면, 스포츠형은 1시간 이하의 평균(2.79±0.9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초과의 평균(2.32±0.9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4시간 초과의 평균(4.22±1.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간 이하의 평균(3.55±1.2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1시간 이하의 평균(2.96±0.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이하와 4시간 초과의 평균(2.52±0.93, 2.52±0.9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1시간 이하의 평균(3.11±1.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이하의 평균(2.44±1.2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1시간 이하의 평균(3.38±1.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시간 이하의 평균(2.9±1.1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1시간 이하의 평균(3.98±1.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이하의 평균(3.69±1.4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1시간 이하의 평균(2.34±1.0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간 이하의 평균(2.09±1.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4시간 이하의 평균(3.40±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간 이하의 평균(2.96±1.4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2시간 이하의 평균(3.72±1.2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초과의 평균(3.3±1.3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4-11> 참여시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1시간 이하[a]	2시간 이하[b]	3시간 이하[c]	4시간 이하[d]	4시간 초과[e]	F-value	사후 검정
스포츠형	2.79(0.94)	2.55(1.07)	2.49(1.08)	2.59(1.00)	2.32(0.98)	4.490**	a>d,b,c>e
유행형	3.97(1.27)	3.67(1.14)	3.55(1.21)	3.87(1.41)	4.22(1.44)	3.423**	e>a,d,>b,c
허무주의형	3.11(1.31)	2.63(1.00)	2.79(1.22)	2.44(1.21)	2.55(1.26)	8.873***	a>c,b,e>d
성취형	2.96(0.99)	2.71(0.92)	2.77(1.21)	2.52(0.93)	2.52(0.92)	6.832***	a>b,c>d,e
자기확신형	3.38(1.16)	2.90(1.13)	2.93(1.12)	3.14(0.97)	2.98(1.33)	4.675**	a>d>b,c,e
개성형	3.98(1.21)	3.80(1.41)	3.79(1.41)	3.69(1.45)	3.94(1.49)	3.897**	a,e>d
건강관리형	2.34(1.08)	2.23(1.39)	2.09(1.20)	2.29(1.12)	2.15(1.03)	4.212**	a>c,e
생활배려형	3.18(1.33)	3.13(1.43)	2.96(1.43)	3.40(1.29)	3.18(1.29)	4.899**	d>a,b,e>c
안전형	3.61(0.98)	3.72(1.24)	3.62(1.28)	3.49(1.12)	3.30(1.35)	2.923*	a,b,c>d>e

***: p<0.001, **: p<0.01, *: p<0.05

2) 주 이용횟수

이용횟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12>와 같다. 결과를 보면, 스포츠형은 주1회의 평균(2.65±1.0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39±0.9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주1회의 평균(4.16±1.2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3.43±1.36)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주3회의 평균(2.91±1.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5±0.9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주3회의 평균(2.97±1.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57±1.1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주1회의 평균(3.21±1.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92±1.2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주1회의 평균(4.00±1.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3.59±1.3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주2회의 평균(2.48±1.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1회의 평균(2.13±1.0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주1회의 평균(3.28±1.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84±1.3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주2회의 평균(3.55±1.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3회의 평균(3.41±1.3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주당 이용횟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주1회[a]	주2회[b]	주3회 이상[c]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65(1.02)**	**2.39(0.97)**	**2.40(0.98)**	**3.469***	**a>c,b**
유행형	**4.16(1.28)**	**3.43(1.36)**	**3.81(1.33)**	**12.082*****	**a>c>b**
허무주의형	2.72(1.23)	2.57(1.14)	2.97(1.44)	2.357	
성취형	**2.72(0.96)**	**2.50(0.95)**	**2.91(1.12)**	**3.852***	**c>a>b**
자기확신형	**3.21(1.18)**	**2.92(1.25)**	**2.95(1.12)**	**3.202***	**a>c,b**
개성형	**4.00(1.38)**	**3.59(1.38)**	**3.82(1.36)**	**3.342***	**a>c>b**
건강관리형	**2.13(1.03)**	**2.48(1.36)**	**2.25(1.11)**	**3.699***	**b>c,a**
생활배려형	**3.28(1.33)**	**2.84(1.31)**	**3.26(1.33)**	**4.292***	**a,c>b**
안전형	3.53(1.17)	3.55(1.21)	3.41(1.31)	0.405	

***: $p<0.001$, *: $p<0.05$

3) 이용기간

이용기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13>과 같다. 결과를 보면, 스포츠형은 1년 미만의 평균(2.74±1.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이상의 평균(2.44±0.9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3년 이상의 평균(4.11±1.3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의 평균(3.68±1.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1~3년 미만의 평균(2.71±1.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 3년

이상의 평균(2.7±1.02, 2.7±0.98)의 평균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1년 미만의 평균(2.87±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이상의 평균(2.67±1.24)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3년 이상의 평균(3.19±1.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2.83±1.1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3년 이상의 평균(3.96±1.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3.75±1.3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1년 미만의 평균(2.27±1.2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의 평균(2.1±1.0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3년 이상의 평균(3.27±1.3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3.06±1.3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3년 이상의 평균(3.59±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3.41±1.0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이용기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1년 미만[a]	1~3년 미만[b]	3년 이상[c]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74(1.09)**	**2.57(0.97)**	**2.44(0.97)**	**3.680***	**a>b>c**
유행형	**3.68(1.2)**	**3.81(1.36)**	**4.11(1.37)**	**4.971*****	**c>b>a**
허무주의형	2.87(1.29)	2.7(1.24)	2.67(1.24)	1.092	
성취형	2.7(1.02)	2.71(1.00)	2.7(0.98)	0.008	
자기확신형	3.12(1.15)	2.83(1.14)	3.19(1.21)	3.012	
개성형	3.8(1.16)	3.75(1.34)	3.96(1.5)	0.975	
건강관리형	2.27(1.2)	2.1(1.02)	2.25(1.13)	0.709	
생활배려형	3.1(1.33)	3.06(1.32)	3.27(1.34)	1.083	
안전형	3.45(1.12)	3.41(1.05)	3.59(1.29)	1.031	

***: $p<0.001$, *: $p<0.05$

4) 참여 구분

참여 구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표 4-14>와 같다. 스포츠형은 개인의 평균(2.56±0.9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2.52±1.1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형은 개인의 평균(4.09±1.3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3.6±1.3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아카데미의 평균(2.77±1.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2.29±0.9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무주의형은 아카데미의 평균(2.75±1.2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2.69±1.2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확신형은 개인의 평균(3.13±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카데미의 평균(2.97±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형은 개인의 평균(4.06±1.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3.49±1.4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형은 개인의 평균(2.35±1.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1.93±0.95)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배려형은 아카데미의 평균(3.27±1.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3.06±1.3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형은 동호회의 평균(3.70±1.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카데미의 평균(3.41±1.1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참여 구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유형별	동호회[a]	개인[b]	아카데미[c]	F-value	사후검정
스포츠형	2.52(1.1)	2.56(0.93)	2.54(1.19)	0.058	
유행형	**3.6(1.38)**	**4.09(1.32)**	**3.78(1.27)**	**5.769****	**b>c,a**
허무주의형	2.69(1.21)	2.74(1.27)	2.75(1.27)	0.067	
성취형	2.69(0.94)	2.69(0.98)	2.77(1.12)	0.192	
자기확신형	3.11(1.23)	3.13(1.2)	2.97(1.1)	0.524	
개성형	**3.49(1.45)**	**4.06(1.36)**	**3.67(1.25)**	**7.509****	**b>c,a**
건강관리형	**1.93(0.95)**	**2.35(1.18)**	**2.14(1.1)**	**5.539****	**b>c>a**
생활배려형	3.06(1.39)	3.2(1.28)	3.27(1.48)	0.598	
안전형	3.7(1.22)	3.48(1.2)	3.41(1.17)	1.618	

**: $p<0.01$

나. 만족의 평균차이 분석

1) 참여만족

참여시간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1시간 이하의 평균(2.90±1.0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간 이하의 평균(2.37±0.8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주3회의 평균(2.73±1.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39±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간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1년 미만의 평균(2.64±0.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2.59±1.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구분에 따른 참여만족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만족은 아카데미의 평균(2.71±1.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2.36±0.97)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참여형태에 따른 참여만족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value	사후검정
참여시간	1시간이하	2.9(1.02)	0.704	
	2시간이하	2.66(0.85)		
	3시간이하	2.37(0.83)		
	4시간이하	2.52(0.98)		
	4시간초과	2.47(1.09)		
주당 이용횟수	**주1회[a]**	**2.67(0.97)**	**3.496***	**c, a>b**
	주2회[b]	**2.39(1.00)**		
	주3회 이상[c]	**2.73(1.12)**		
이용기간	1년 미만	2.64(0.99)	0.073	
	1~3년 미만	2.59(1.11)		
	3년 이상	2.61(0.99)		
참여구분	**동호회[a]**	**2.36(0.97)**	**4.119***	**c, b>a**
	개인[b]	**2.68(0.98)**		
	아카데미[c]	**2.71(1.12)**		

*: p<0.05

2) 시설 만족

참여시간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는 1시간 이하의 평균(3.24±1.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시간 이하의 평균(2.56±0.9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는 주3회의 평균(3.08±1.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73±1.2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간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는 1~3년 미만의 평균(3.16±1.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의 평균(2.82±1.0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구분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는 동호회의 평균(3.02±1.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카데미의 평균(2.85±1.1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4-16> 참여형태에 따른 시설만족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F-value	p-value
참여시간	1시간 이하	3.24(1.15)	0.737	0.567
	2시간 이하	3.20(1.11)		
	3시간 이하	2.70(1.24)		
	4시간 이하	2.56(0.98)		
	4시간 초과	2.77(1.08)		
주당 이용횟수	주1회	2.95(1.11)	2.587	0.076
	주2회	2.72(1.23)		
	주3회 이상	3.08(1.10)		
이용기간	1년 미만	2.82(1.03)	2.503	0.083
	1~3년 미만	3.16(1.13)		
	3년 이상	2.89(1.19)		
참여구분	동호회	3.02(1.16)	0.483	0.617
	개인	2.91(1.14)		
	아카데미	2.85(1.12)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다. 선택행동의 평균차이 분석

1) 재방문의도

이용시간에 따른 재방문의도의 차이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1시간이하의 평균(3.16±1.3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시간이하의 평균(2.25±0.8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횟수에 따른 재방문의도의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주3회의 평균(2.83±1.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2회의 평균(2.64±1.2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간에 따른 재방문의도의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1년 미만의 평균(2.83±1.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2.58±1.05)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구분에 따른 선재방문의도의 결과를 보면, 재방문은 아카데미의 평균(2.93±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2.54±1.2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참여형태에 따른 재방문 의도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F-value	p-value
참여시간	1시간 이하	3.16(1.35)	0.885	0.473
	2시간 이하	2.63(0.94)		
	3시간 이하	2.25(0.82)		
	4시간 이하	2.72(1.23)		
	4시간 초과	2.45(1.12)		
주당 이용횟수	주1회	2.68(1.14)	0.636	0.530
	주2회	2.64(1.22)		
	주3회 이상	2.83(1.36)		
이용기간	1년 미만	2.83(1.33)	1.279	0.279
	1~3년 미만	2.58(1.05)		
	3년 이상	2.67(1.17)		
참여구분	동호회	2.54(1.29)	2.360	0.096
	개인	2.69(1.13)		
	아카데미	2.93(1.29)		

2) 구전의도

참여시간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결과를 보면 1시간이하의 평균(2.95±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간이하의 평균(2.19±1.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결과를 보면 주3회의 평균(2.78±1.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1회, 주2회의 평균(2.57±1.11, 2.57±1.5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간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결과를 보면 1년 미만의 평균(2.72±1.54)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미만의 평균(2.53±1.1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구분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결과를 보면 아카데미의 평균(2.69±1.3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호회의 평균(2.58±1.5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참여형태에 따른 구전의도의 차이

구분		평균(표준편차)	F-value	p-value
이용시간	1시간 이하	2.95(1.47)	1.904	0.109
	2시간 이하	2.50(0.99)		
	3시간 이하	2.19(1.10)		
	4시간 이하	2.72(1.38)		
	4시간 초과	2.44(1.21)		
주당 이용횟수	주1회	2.57(1.11)	0.826	0.439
	주2회	2.57(1.53)		
	주3회 이상	2.78(1.58)		
이용기간	1년 미만	2.72(1.54)	0.766	0.466
	1~3년 미만	2.53(1.19)		
	3년 이상	2.57(1.20)		
참여구분	동호회	2.58(1.53)	0.209	0.811
	개인	2.59(1.19)		
	아카데미	2.69(1.37)		

3.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존재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결과해석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차한계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이 참여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2=0.431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참여 만족의 4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0.297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이 참여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라이프스타일이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참여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중 참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스포츠형(표준화계수=0.248, p<0.001), 유행형(표준화계수=0.115, p<0.01), 성취형(표준화계수=0.291, p<0.001), 자기확신형(표준화계수=0.082, p<0.05), 개성형(표준화계수= 0.189, p<0.001), 건강관리형(표준화계수=0.088, p<0.05)로 유의수준 5%에서 모두 유의하다. 즉 라이프스타일에서 스포츠형, 유행형, 성취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은 참여만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6개의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하면 참여만족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19> 라이프스타일이 참여 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value	VIF
(상수)	**-0.443**	**0.194**		**-2.281***	
스포츠형	**0.248**	**0.044**	**0.248**	**5.659*****	**1.560**
유행형	**0.087**	**0.030**	**0.115**	**2.932****	**1.253**
허무주의형	0.058	0.031	0.072	1.891	1.173
성취형	**0.296**	**0.041**	**0.291**	**7.148*****	**1.354**
자기확신형	**0.069**	**0.034**	**0.082**	**2.012***	**1.344**
개성형	**0.138**	**0.028**	**0.189**	**4.958*****	**1.185**
건강관리형	**0.079**	**0.034**	**0.088**	**2.287***	**1.214**
생활배려형	0.026	0.030	0.035	0.865	1.310
안전형	0.034	0.031	0.040	1.099	1.093
R^2=0.431, F=40.297***					

***: p<0.001, **:p<0.01, *: p<0.05

나.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만족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2=0.291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참여 만족의 2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2.119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이 시설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중 시설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스포츠형(표준화계수=0.137, p<0.01), 유행형(표준화계수=0.112, p<0.05), 성취형(표준화계수=0.267, p<0.001), 개성형(표준화계수=0.166, p<0.001), 안전형(표준화계수=0.090, p<0.05)로 유의수준 5%에서 모두 유의하다. 즉 라이프스타일에서 스포츠형, 유행형, 성취형, 개성형, 안전형은 시설만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6개의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하면 시설만족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0>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value	VIF
(상수)	-0.066	0.245		-0.269	
스포츠형	**0.155**	**0.055**	**0.137**	**2.798****	**1.560**
유행형	**0.096**	**0.037**	**0.112**	**2.558***	**1.253**
허무주의형	0.014	0.039	0.015	0.358	1.173
성취형	**0.306**	**0.052**	**0.267**	**5.848*****	**1.354**
자기확신형	0.086	0.044	0.089	1.967	1.344
개성형	**0.136**	**0.035**	**0.166**	**3.889*****	**1.185**
건강관리형	0.043	0.043	0.043	0.997	1.214
생활배려형	0.051	0.038	0.060	1.340	1.310
안전형	**0.086**	**0.039**	**0.090**	**2.203***	**1.093**
R^2=0.291, F=22.119***					

***: p<0.001, **:p<0.01, *: p<0.05

4.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결과 해석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위험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차한계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2=0.184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재방문의도의 1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2.55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중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스포츠형(표준화계수=0.207, p<0.001), 성취형(표준화계수=0.234, p<0.001), 개성형(표준화계수=0.143, p<0.01)로 유의수준 5%에서 모두 유의하다. 즉 라이프스타일에서 스포츠형, 성취형, 개성형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3개의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하면 재방문의도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1> 라이프스타일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value	VIF
(상수)	**0.558**	**0.276**		**2.018***	
스포츠형	**0.245**	**0.062**	**0.207**	**3.936*****	**1.560**
유행형	-0.042	0.042	-0.047	-0.992	1.253
허무주의형	0.047	0.043	0.049	1.079	1.173
성취형	**0.282**	**0.059**	**0.234**	**4.788*****	**1.354**
자기확신형	0.016	0.049	0.016	0.328	1.344
개성형	**0.124**	**0.040**	**0.143**	**3.129****	**1.185**
건강관리형	0.037	0.049	0.035	0.759	1.214
생활배려형	-0.009	0.043	-0.011	-0.219	1.310
안전형	0.059	0.044	0.059	1.344	1.093
R^2=0.184, F=12.55***					

***: p<0.001, **:p<0.01, *: p<0.05

나.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2>와 같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2=0.202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구전의도의 2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4.001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 중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스포츠형(표준화계수=0.201, p<0.001), 성취형(표준

화계수=0.200, p<0.001), 개성형(표준화계수=0.120, p<0.01)로 유의수준 5%에서 모두 유의하다. 즉 라이프스타일에서 스포츠형, 성취형, 개성형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3개의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하면 구전의도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2> 라이프스타일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value	VIF
(상수)	-0.110	0.297		-0.370	
스포츠형	**0.258**	**0.067**	**0.201**	**3.861*****	**1.560**
유행형	0.053	0.045	0.055	1.178	1.253
허무주의형	0.078	0.047	0.076	1.676	1.173
성취형	**0.262**	**0.063**	**0.200**	**4.137*****	**1.354**
자기확신형	-0.047	0.053	-0.043	-0.899	1.344
개성형	**0.112**	**0.042**	**0.120**	**2.646****	**1.185**
건강관리형	0.056	0.053	0.049	1.070	1.214
생활배려형	0.074	0.046	0.077	1.609	1.310
안전형	0.078	0.047	0.072	1.660	1.093
R^2=0.202, F=14.001***					

***: p<0.001, *: p<0.05

5.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만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결과 해석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위험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차한계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2=0.326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만족이 재방문의도의 3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2.870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나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만족 중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참여만족(표준화계수=0.588, p<0.001)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만족에서 참여만족은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만족이 증가하면 재방문의도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3>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value	VIF
(상수)	**0.940**	**0.136**		**6.887*** **	
참여만족	**0.697**	**0.061**	**0.588**	**11.351*** **	**1.840**
시설만족	-0.022	0.054	-0.021	-0.412	1.840
R^2=0.326, F=112.870***					

***: p<0.001

나.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4>와 같다. 먼저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2=0.327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만족이 재방문의도의 3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2.989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p<0.001)으로 나타나 만족이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만족 중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참여만족(표준화계수=0.512, p<0.001)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만족에서 참여만족은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만족이 증가하면 구전의도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4>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value	VIF
(상수)	**0.592**	**0.148**		**3.988*****	
참여만족	**0.659**	**0.067**	**0.512**	**9.870*****	**1.840**
시설만족	0.100	0.059	0.088	1.690	1.840
R^2=0.327, F=112.989***					

***: p<0.001

Ⅴ. 논의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통해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과의 관계,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개념들 간에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 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2집단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는 개성인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유행형, 개성형, 건강관리형가 차이가 있으며, 유행형에서는 50대, 개성형에서는 40대, 건강관리형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행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생활배려형가 차이가 있었으며, 유행형와 개성형에서 고졸이, 자기확신형에서는 대학원생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배려형는 대학교재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허무주의형, 안전형가 차이가 있었으며, 허무주의형에서는 101만원~200만원의 소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형에서는 301만원~400만원의 소득에서 가장 높다.

박창렬(2003)은 스포츠센터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남자가 자기확신과 개성인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연령에 대해서는 유행인자, 성취인자, 자기확신, 개성인자가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허무주의인자와 생활배려인자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대졸이상이 유행인자, 성취인자, 자기확신이 고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스포츠인자, 유행인자, 성취인자, 생활배려인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Riddick(1985)는 개인의 성, 연령, 수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otler(1997)는 소비자 시장의 주요 시장 세분화 변수인 연령, 성별, 가족 수, 소득, 직업, 학력 등에 따라 소비자 세분화가 이루어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성수(1997)는 레저시설 이용자의 공공정보탐색 경로에 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자는 자기확신과 개성인자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진 등(200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여가활동 선호에 있어서 남학생은 적극적 사회활동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충현(2001)은 라이프스타일은 생활, 행동, 사고 양식 등 다면적인 생활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으로써 특정 집단과 계층이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활동을 이해와 정리를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시설 마케팅 현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성영(1989)은 교육수준이 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밝히고 있으며, 박문환(1996)은 스포츠 센터 참가자의 스포츠 참가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력은 성취적 사회범주의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스포츠 시설 참가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 참여율과 라이프스타일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구(1998)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김영미(1999)의 연구에서도 연령, 성, 사회적 지위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박시범, 1993; 윤이중, 박영표, 2000; 정상원, 1993; 하지원, 1998)에서 살펴보듯이,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스포츠 소비확대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는 이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해양스포츠 활성화 미래를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층, 같은 교육수준, 유사한 소득수준에 속하는 사람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에 따라 행동양식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타일에 따른 세분화 연구는 고객들의 라이프타일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만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만족은 관계가 없다. 성별에 따른 선택행동의 차이에서는 재방문과 구전의도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재방문과 구전의도 모두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만족의 차이는 없었다. 김이영(2004)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20대에서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박수정(1996)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고 스포츠이벤트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를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동기화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정해(1996)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과 만족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생이상이 대졸이나 고졸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태식(2000)과 김은주(1990)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

였다. 김정희(1996)는 학력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스포츠 활동 참여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만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선택행동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족에 대한 차이가 없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만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참가만족이나 시설만족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러한 만족의 차이는 해양스포츠의 재방문이나 구전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 제품에 대해 불만족 하였을 경우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해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제시하여 그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만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시설확충,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참가자의 참여 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참여형태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유행형, 스포츠형, 성취형, 허무주의인자,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 사회배려형, 안전형이 차이가 있었으며, 유행형에서는 4시간 초과, 스포츠형와 성취형, 허무주의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 생활배려형에서 1시간 이하의 시간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안전형에서는 2시간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이용횟수에 따라서는 유행형, 스포츠형, 성취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건강관리형, 사회배려형에서 차이가 있다. 유행형, 스포츠형, 자기확신형, 개성형, 생활배려형에서 주 1회가 가장 높았으며, 성취형에서는 주3회, 건강관리형에서는 주2회의 평균이 가장 높다. 이용기간에 따라서는 유행형,

스포츠형, 자기확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유행형, 자기확신형에서 3년 이상, 스포츠형에서 1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행태에 따라서는 유행형, 개성형, 건강관리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행형, 건강관리형 모두 평균이 가장 높았다.

조충현(2001)은 스포츠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스포츠인자, 성취인자, 자기확신인자, 건강관리인자, 안전인자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용기간, 운동 횟수 참여형태에 따라서도 라이프스타일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용시간, 이용기간, 참여형태에 따라서는 만족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용횟수에 따른 만족차이에서는 참여만족에서 차이가 있었고, 주3회가 만족이 가장 높았다. 이용시간, 이용횟수, 이용기간, 참여형태에 따른 선택행동의 차이가 없다.

지삼업, 이재빈(2009)은 '해양스포츠 전진기지의 시설이용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참여기간에 따라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의 차이가 있고, 6개월 미만에서 가장 높고, 또한 참여빈도에 대해서는 시설이용만족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성애, 박문진(2006)의 연구에서 참여기간에 따라 공공스포츠 시설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구전의도 및 재방문의도와도 차이가 없어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인석(2008)의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별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고, 구전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이영(2004)의 연구에서는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참여기간이 긴 집단이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김나미(1997)의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정도 중 참여기간이 이용만족도와 가장 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조재기(1997)는 상업스포츠 시설 이용자의 시설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기간, 종목, 동기에 따라 시설이용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참여형태가 시설이용만족도의 주요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해양스포츠의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참여형태를 가진다. 즉, 이용하는 시간이나 횟수,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느끼는 만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자들의 참여형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 없으나, 주로 주말을 이용한 참가자들이 많을 것이며, 한번 이용한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참가를 원하고, 또한 참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 만족이나 시설만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에 대한 만족은 오래 이용하는 참가자일수록 낮아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보완이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과의 관계

라이프스타일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중 허무주의형, 생활배려형, 안전형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참여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만족에는 허무주의형, 건강관리형, 생활배려형를 제외한 모든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

김경희, 이용철(2008)의 연구에서는 축제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참가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은 참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광현, 원철식(2002)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은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삼업, 이재빈(2009)의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각종(마리나·보트계류장·다기능어항) 전진기지 기능에 따른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행추

구에서는 이용만족과 시설만족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확신에서는 이용만족에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추구와 스포츠 추구에서는 이용만족과 시설만족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허무주의에서는 이용만족과 시설만족에 부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형(2005)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관광 상품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스포츠 관광 상품 구매 만족에 양향을 미친다.

라이프스타일과 만족간의 연구에 대해 김홍설(1999)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맞는 서비스 만족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만족차원에서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불만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스포츠형, 성취형, 개성형이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번장 등(2000)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스포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영표, 서희진(2003)은 스포츠센터 고객의 서비스 만족 및 라이프스타일 특성은 스포츠 센터 재구매가능성 및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박창렬(2003)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재구매 및 구전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오준석, 노동연(2004)은 스포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매 후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은 재구매의도,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참여만족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태수(2006)는 운동만족은 재방문의도의 선행요인이며, 중요한 변수라 하였으며, 서태양 등(2007)은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품질 지각과 공공체육시설의 관여도 수준에 따른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이용자의 고객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방문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조만태, 김성수(2007)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에 긍정적 추천을 한다고 하였다. 문태영(2007)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센터의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참여하고 즐기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해양스포츠를 참여하고 느끼는 만족에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양스포츠 참가자들 개개인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미 연구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의 활용 및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족을 통한 재방문이나 구전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는 많으며,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만족을 매개로 하여 선택행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만족을 수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나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62명의 해양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이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결론

첫째,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를 파악해본 결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만족이나, 시설만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행동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은 다르며, 이를 고려한 연구 및 해양스포츠를 운영하는 마리나의 마케팅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만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행동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해양스포츠는 남자들만이 이용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는 스포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해양스포츠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서비스제공이나 시설(클럽하우스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가형태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만족, 선택행동의 차이에서는

이용시간이나 이용횟수, 이용기간, 참가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는 이용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고, 이용횟수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참가자, 3년 이상의 경력, 개인의 참여형태를 보일 때 많은 라이프스타일 인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 1회의 참가자들은 주말을 이용한 참가자들일 경우가 많았고, 오랜 시간의 이용보다는 짧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참여형태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이 고려해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선택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만족과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족 또한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참여 만족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은 다르며, 선택행동에도 차이가 난다.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은 양질의 해양스포츠를 즐기기를 원할 것이며, 이를 통한 만족은 선택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서로 다르며,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군집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다나은 시설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제언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소비수준이나 직업에 대한 세밀한 분류도 없었다. 향후 해양스포츠는 여성이용자들의 인구도 증가할 것이며, 고소득·고학력의 스포츠라는 편견에서 탈피,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저변확대사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세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였지만, 참가자의 행동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가자의 특성과 해양스포츠 종목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구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참가자들의 참여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략도 함께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동우(1998). 선행 관광행동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 연구, 22**(1).

고영환(2005). 해양리조트 서비스품질 시설이용만족도가 여행객이미지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3), 1017-1026.

권정훈(2000).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한 상업 스포츠센터 마케팅 전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김경도(2009).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7.

김경희, 이용철 (2008). 축제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참가만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 22(1),** 311-326.

김기연(2008). **수상레저스포츠시설의 관계마케팅 실행요인과 고객충성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김나미(1997).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와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동기, 이용학 (1992). **소비자 행동분석.** 서울: 전영사.

김동우(2001). **상업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소비행동 특성과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김동진, 김재운 (2001).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여가활동 선호유형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1),** 787-796.

김두하(1999). **주제공원 아용자의 만족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에버랜드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상진(2001). **부산지역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의 구매만족/불만족에 따른 불평행동과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

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김성겸(2008). **수상레저스포츠 선택속성 및 구매행동 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 대학원.

김성곤(1998). **컴퓨터 제품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 기대 불일치 모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성영(1989). **대학생의 사회 계층적 배경과 스포츠참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성훈(2008). **수상레저스포츠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김영미(1999). 무용사회화 요인이 무용수행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12,** 127-140.

김원수(1990). **마케팅 정보시스템론.** 서울: 박영사, 434.

김은주(1999). **여성전문 헬스클럽 이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이영(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츠이벤트 참여동기와 참여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희(1996). **주부의 스포츠 참여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김지현(1991). **스키장 이용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도시근교형과 리조트형의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주훈(1999). 사회체육시설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시설이용만족 결정요인. **한국사회체육학회, 14(2),** 795-803.

김준(2007).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재미요인, 참여제약이 몰입도 및 참여 후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

학원.

김철우(2004). **스포츠관광의 참가동기, 관광지 속성평가가 재참가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김태훈(2008).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을 통한 어촌·어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5.

김홍설(1999). **스포츠팬의 소비자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남동현, 백광(2001).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인식과 그 필요성에 대한 담론. **건영대학교 논문집 7.**

문선호(2009). 해양스포츠 참여동기가 해양스포츠 활동의 신뢰도와 시설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1), 544.

문화관광부(2004).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

문태영(2007). 해양스포츠 센터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재방문 및 추천의도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8(3),** 647-658.

박도형(2005). **스포츠 관광 상품 이용자 라이프스타일과 구매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박문환(1996). 스포츠센터 참가자의 스포츠 참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1),** 153-164.

박수정(1996). **수상스포츠 참여자의 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승환(2005). **스포츠관광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시범(199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레저 활동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영표, 서희진 (2003). 스포츠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서비스만족 및 센터 재구매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1),** 393-405

박찬용(1989). **이용자 만족도에 준거한 도시림의 효용 평가에 관한 연구. -대구시 앞산 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창렬(2003). **스포츠 센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 만족이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박효영(2006). **중학생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학습 참여가 성취동기 및 시설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 대학원.

백재근(2008). **수상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위험인지, 몰입, 충성도 및 재참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서금화(2007).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배달 음식이용행태 및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서성한(1999). **관광산업에의 서브퀄(SERVQUAL) 적용방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태양, 조태영(2007). 공공체육시설 서비스품질 지각 수준과 관여도 수준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139-150.

송상택(1984). **도시민의 실외여가 이용성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안영필, 최인섭, 박성계, 조만태(1996). **현대사회와 스포츠.**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19-21.

양위주, 지삼업, 설훈구, 전재균(2007). 부산·경남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 개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6), 3047-3063.

여천수(2004).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산업의 발전 전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준석, 노동연(2004). 스포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만족 및 구매후 행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2(22),** 267-275.

윤이중(1996).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이중, 박영표(2000). 스포츠소비자행동의 세분화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고찰. **전남대부설 스포츠과학연구소,** 85-102.

원영신(2004). **스포츠 사회학 플러스.** 서울: 대경북스.

이광문(2007). **스포츠관광 환경요인과 선택행동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귀옥(2001). **생태관광지의 개인특성에 따른 관광활동참여와 시설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기화(2005). **스쿼시 운동의 참여정도와 참여동기가 여가시설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원.

이상구(1998). **생활체육 참가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이상호(2007).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의 속성이 참가자의 감정적 반응. 시설이용만족, 재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이수철(2008). **수상레저스포츠 재미요인이 여가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재빈, 배영훈, 지삼업(2009). 마리나 이용자의 시설이용만족이 방문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443-450.

이재빈(201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이재형(2003). **레저스포츠 관광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참여동기가 몰입도와 소비문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정해(1996).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서비스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진모(200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

임번장(2006). **스포츠사회학 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임번장, 서희진(2000). 라이프스타일 특성이 스포츠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39(1).** 233-241.

임태식(2000). **상업용 스포츠 센터의 서비스품질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임찬묵(2006).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에 따른 인지능역, 인지수준과 스포츠 사회화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대학원.

전기환(1998). **여행사의 관계마케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정남주(2005). **상업스포츠센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질, 이미지, 구매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정상원(1993).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한 상업스포츠 센터 마케팅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종석(2004). 한국 요트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 43**(2), 67-79.

조만태, 김성수(2007). 태권도 수련생의 서비스만족이 재구매의도와 구전의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1),** 203-212.

조재기(1997). 상업스포츠 시설이용자의 시설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 187-196.

조충현(2001). **스포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시설 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태수(2006). **근린체육시설 중년층 이용자의 개인적 가치와 서비스품질 지각이 운동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삼업(2002). 해양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요인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6), 241-257.

지삼업(2006). **해양스포츠 자원론.** 서울: 대경북스.

지삼업(2007).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구축 및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해양수산부 '07해양관광 심포지엄 자료집',** 27-72.

지삼업(2008a). **마리나 조성계획과 실제.** 서울: 대경북스, 251-252.

지삼업(2008b). **마리나 관리론.** 서울: 대경북스. 20-21, 24, 26, 288.

지삼업, 이재빈(2009a).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기능과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만족도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6),** 3391-3403.

지삼업, 이재빈, 배영훈(2009b).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이용자의 시설이용만족도가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2), 981-991.

지삼업(2010a). 스포츠형 마리나의 활동환경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속성평가 비교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5B),** 2917~2918.

지삼업, 이재빈, 임재현, 이호, 김정철(2010b). 마리나의 물리적 환경이 이용

자들의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 1729-1739.

진수문(2009). **중국내 헬스클럽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채서일(1992).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채서일(2003). **사회과학 조사방법론(3rd ed).** 서울: 학현사.

최규환(2005). 관광교육 서비스 평가, 시설이용만족,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8**(1), 3.

최성애, 박문진(2006). 공공스포츠시설의 서비스 품질만족이 소비자 재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2),** 129-140.

최인석(2008). 골프연습장 고객의 긍정적 운동중독성향이 이용만족, 지속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 507-520.

하지원(1998). **스포츠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 요인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정주(1998). **민간영리 스포츠 센터 소비자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혜림(2004). **고객이 지각한 가치가 감정적 반응과 고객시설이용만족을 통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함도웅(2007). **수상레저스포츠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환경보호실천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황영길(2005).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황철상(2006). **해양 레저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한 시장 세분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홍창근(1985). **직장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고찰 -서울시 사무직 직장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Adler Alfred,(1969) Ed, trans by H. L. Ansbacher." The Science of Living." N.Y, Anchor Book Doubleday Co.

Allport, G, W(1965) "Pattern and Growth of personality." New York, Anchor Book Doubleday Co.

Andersen, T. W. & Gorden, L. L,(1994).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A Crit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11, 405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arch, 12(1), pp. 20-33.

Binter, Mary. J(1990). Evaluating service encounters: the effect of physical surrounding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4(1).

Bolton, R, N. & Drew, F. H(1991). A multi-stage model of consumer assessment of service quality and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1).

Brensinger, R. P. and D. M. Lambert(1990), "Can the SERVQUAL be Generalized to U Business to Business Service?, in 1990 AMA, 289.

Brightbill, C.(1961). Manand Leisure: A Philosophy of Recreation.

Bushman, F. A.(1982)." Lyfe style for New Product Segment."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1(3).

Clark(1971). Values, Behavior and Conflict in Modern Camping Cult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 143-159.

Coleman, J. C.(1964), "Abnormar Psychology and Modern Life 3rd ed." Chicago, Scott & Foresman.

Driver, B(1976). Research, Camping and Environmental Education. Quantification of Outdoor Reacreationist's Perference. Pen State HPER Series, 165-187.

Dumazedier, J(1974). Sociology of Leisure.

Duncan, H, D.(1969) "Symbols and Societ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N. Y.

Engel, J. & Blackwell(1982). Consumer Behavior, The Dryden Press.

Engel, J. F. & R, D. Blackwell, R. D(1982). Consumer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Engel, James F. Rogers D. Blackwell and Paul W. Miniard(1995), Consumer Behavior, 8th edm The Dryden Press, 143-154.

Fridgem, J, D(1991). Dimensions of Tourism, Educational Institute.

Geva. A. & Goldman(1991). "Duality in consumer Post - Purchase Attitude", Joumal, of Economec Psychology, 12.

Gunn, S(1977). Leisure counseling: An Analysis of Play Behavior and Attitude Using Transectional Analysis and Gestalt Awareness.

Hunt(197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Cambridge Mass: Marketing Sience Institute, 459-460.

Jackson & Button(1989). Motivation for Leisure and Recreation. Wm. C. Brown Company.

Kotler, P. (1997). Marketin management: Analysis, Pla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NJ: Prentice-Hall.

Kraus(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Kraus(1977). Leisure in Modern Society. NY: 235-236.

Lazer, William.(1963). "Life Style Concepts & Marketing.", in S. A. Grey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Lazer, W. (1971). Marketing management: Asystem perspective(N.y: John wiley & sons, inc.) 483.

Levy, S. J.(1963). " Symbolism and Life Style", in Stephan A. Grey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ng, 14.

Maslow, a(1962). Toward a psychology of being(2nd. Ed). Toronto: Van Nos Reinhold.

Moore, David, G.(1963). "Life Style in Moblile Suburbia." in Stephan A. Grey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erican Marketig Association.

Moore, M. M (1968). The clothing market of older women. Ph. D. Dissertation, Perdue, Unive.

Neulinger and R. Crandall(1975). Psychology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 181-190.

Oberteuffer, D(1978). Physical Education: A Text Book of Principles for Professional Student.

Oliver, R L(1993).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es in Retail Settings", Journal of Retailing 57, 25-48.

Patrick, G(1916). The Psychology of Relaxation.

Pllummer, J. T(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style. journal of marketing, 38(1), 34.

Propst & Line(1982). How Satisfying is Satisfaction Research, In Forest

and River Recreaton Research Update. University of Minnesota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iscellaneous Publication, 18.

Ragheb & Beard(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 20-33.

Ragheb & Beard(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 219-227.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 Leisure Science, 7, 47, 63.

Richeld, M. L.(1983). "Nehative Word of Mouth by dissatisfied Consummer: A Pilot study:, Joumal of Marketing. 47(Winter).

Richard, Michael D. and Arthur W. allaway(1993), "service Quality Attributes and Choice Behavior",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7(1), 59-68.

Rutledge, A(1971). Anatomy of a Park: The Essentials of Recreation are Planning and Design.

Sapora, A(1975). Modern Concepts of Leisure.

Van Raajj(1987). Expectation, Actu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141-155.

Doctor Dissertation

Research on Constraints,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of Maritime Sports

Jae-hyn L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of marine sports enthusiast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n a regular basis were recruited. marine sports users across the country are most active area in Busan, Gyeongnam, Seoul, Pohang are used in various marine sports involving users were limited to the proceeds. Researchers enrolled a total of 462 directly by visiting the site survey was done through.

Participants, especially marine sports lifestyle, satisfaction, choice behavior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of the national marine sports users are most active area in Busan, Gyeongnam, Seoul, Gyeongbuk are used in various marine sports are the target users. The study researchers and investigators to visit the destination for marine sports participants and distributed a questionnaire and then, responding to tips and cautions described self-assessment and filled in (Self-Administration Method) after responding to a questionnaire to collect, insincere, and after excluding responses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method used was the construct

validit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the questionnaire in this research setting to evaluate a series of hypothetical concepts is determined by the compliance.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through factor analysis, construct validity is a form of proof.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echniques were used.

Factors as well as the extraction method and orthogonal times repetitive tactics conjectural factors (Varimax rotation) was used. Extracted significant concessions to describe a matrix based on the validity of the absolute value of 0.5 is higher than that at 1% level significant factor because the enemy is greater than 0.5 were used for revision.

Reliability testing of the questionnaire using Cronbach 's way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scale was conducted.

The study of marine sport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 selection of action satisfied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For this purpose, marine sports participants about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462 participants, marine sport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impact on satisfaction and behavioral choice were analyzed. And leading a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research using the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review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ine sports to participate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lifestyle,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difference in choice behavior, age, education level, income, there were differences in lifestyle. However,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and facilities for the satisfactio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hoice behavior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ender.

In other word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style, there′s that difference,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lifestyle, considering it operates research and marine sports marketing studies will be needed in the Marina. Also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of the most satisfaction

was high. Choice behavior was higher for men than women, and men only use marine sports in the future, not a sport a sport that women will be actively participating. Thus, for women interested in marine sports can be heightened expansion of services or facilities will be needed.

Second, the marine sports activities, depending on the type lifestyle, satisfaction, and that the difference in choice behavior by using time and frequency, use the period, the participant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Differences in lifestyle, the available time does not exceed one hour, using one or more times a week, the number of participants, more than 3 years of experience, personal involvement to show the form many are showing the difference in lifestyle factors. In other words, a conference participant shares by the participants when it is weekend and there will be a long time, rather than the use of short, make the most of the time to enjoy the marine sports that are unknown. These forms of particip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lifestyle is a big difference, these differences to consider,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can ensure the convenience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in the marketing strategy is needed.

Third, marine sports and satisfy the lifestyle of the participants, selected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depending on lifestyle, behavior and choices affect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may also affect choice behavior. Depending on the type of lifestyle,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facilities meet or different and differ in choice behavior. Quality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will want to enjoy marine sports, this action will lead to satisfaction of choice. But the lifestyle of the participants is different and, for the revitalization of marine sports to the lifestyle of the participants are separated by clusters, as well as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for it a better facility, and marketing is needed.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검토하기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설문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평소의 생각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통계법 제 13조에 의거」 하여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의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소 귀하가 각종 해양스포츠 종목들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한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임 재 현

지도교수: 지 삼 업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재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5. 귀하의 월 소득(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의 경우 가계수입)은?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미만 ③ 201~300만원 미만
④ 301만원~400만원미만 ⑤ 401만원~500만원미만 ⑥ 600만원 이상

6. 귀하는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때, 하루(1일)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_____시간

7. 귀하가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시, 1주일 중 언제입니까?
① 주중 ② 주말 및 공휴일 ③ 전일(1주일 내내)

8. 귀하가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시, 주당 참여 빈도는 몇 회 입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9. 귀하가 해양스포츠를 생애 처음으로 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언제쯤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10. 귀하의 해양스포츠 참여형태는?

① 동호회 형태로 참여 ② 개인적으로 참여 ③ 각 종목별 아카데미(학교)

11. 귀하는 해양스포츠 참여시, 주로 어떤 종목의 해양스포츠를 즐기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요트 ② 윈드서핑 ③ 스포츠피싱(선상낚시) ④ 수상오토바이 ⑤ 모터보트(파워보트, 고무보트 등 선·내외기) ⑥ 해양래프팅 ⑦ 해양조정 ⑧ 해양카누·해양카약 ⑨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등) ⑩ 수상스키 ⑪ 스포츠잠수(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⑫ 콘도, 클럽하우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⑬ 기타(_____)

12. 귀하가 주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명_____(예: 부산지역 등)

13. 귀하가 해양스포츠를 즐길(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① 해양스포츠 각종(마리나, 요트경기장, 보트계류장) 전진기지

② 바다(해수욕장) ③ 강 ④ 호소(湖沼) ⑤ 기타_____

14.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교수, 교사, 연구원, 종교인, 회계사, 방송인 등)

② 전문관리직

(기업경영주 및 부장급이상, 고급 4급 공무원이상, 자영업체 경영자, 군 장성 등)

③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 공무원, 직업군인, 직업경찰 등)

④ 근로직(생산직, 운전기사, 전진기지 기능공 등)

⑤ 주 부(전업주부)

⑥ 학 생(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⑦ 자영업

⑧ 무 직

⑨ 기 타_____

Ⅰ. 다음은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질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아니다
1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체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운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복장이나 액세서리 등의 상품을 자주 몸에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지금의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활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좋아서 하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좋아서 하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스포츠는 피곤한 신경을 따뜻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때 올바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패션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나 시간은 아깝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품을 지니지 않으면 어쩐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스포츠나 취미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운동이나 스포츠는 건강 유지를 위해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과음(술)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신체의 노화 현상은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가능한 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차츰 개혁해 나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스포츠의 목적은 체형 조성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건강을 위해 식사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건강을 위해 수면을 충분히 취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그룹가운데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해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모습은 근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질 문 내 용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아니다	
26	나 자신의 목표를 정해 그것을 완수하는 타입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친구가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곧 나 자신도 원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같은 것을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으면 싫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취미나 레저에서는 무엇이든 관심을 갖지만 길게 계속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용건이 생기거나, 생각해 낸 것은 곧 실행해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조성에 힘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나는 노는 것에서나 일하는 것에서도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열중해서 어떻게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는 양복 등을 살 경우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을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는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자신의 개성을 발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나는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나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패션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나는 메이커 상품 이외의 것이나 모조품 등은 창피해서 몸에 지닐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나는 월중 몇 회인가는 필히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나는 유행에 관한 기사나 화제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나는 양복은 대부분의 경우 유행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나는 운동이나 스포츠는 동료 조성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나는 오래된 것은 긴 시간 계속 계승되어 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쩐지 공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6	나는 운동이나 스포츠는 동료조성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7	나는 무엇을 해도 잘되지 않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8	나는 평균적인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생활의 방법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9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은 생활의 방법을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0	나는 타인과는 조금 다른 개성적인 생활태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	나는 양복 등을 살 경우 비교적 눈에 띄는 것을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다음은 참여만족에 대한 평가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아니다
해양스포츠				
1	참여는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참여는 체력의 증진에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참여는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참여는 나의 건강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시설 및 장소는 보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시설 및 장소는 흥미를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시설 및 장소는 경치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참여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참여는 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참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다음은 해양스포츠 참여 후의 선택행동(재방문의도, 권유의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아니다
해양스포츠 각 종목에					
1	재참여의도	다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확실히 다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시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권유의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